[UCI]I804:24011-200000231727

<박씨전>의 환상성 연구

A Study on the Fantasy of <Parkssijeon>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수 희

<박씨전>의 환상성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심 수 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466 2007-04-09

김수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illegible]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상 원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중 인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目 次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4

Ⅱ. 한국문학에서의 환상성 9
1. 환상의 정의 및 특징 9
1-1. 환상의 정의 9
1-2. 환상의 특징 16
1-3. 지형학으로 본 환상 19
2. 한국 고전작품에서의 환상 21

Ⅲ. <박씨전>에 나타난 환상성 26
1. 적강모티프와 변신모티프의 결합 26
2. 환상공간으로서의 피화당 40
3. 인물과 사건의 초월적 성격 49
3-1. 박처사의 이인적 성격 49
3-2. 박씨의 초월적 능력 52
3-3. 도술을 통한 사건 전개 57

Ⅳ. <박씨전>의 환상성이 갖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 65

Ⅴ. 결론 70

참고문헌 73

Abstract

A Study on the Fantasy of < Parkssijeon >

Author : Kim Sue-hee

Advisor : Prof. Kim Su-jung

Dept. of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Parkssijeon> as a heroin novel, normal characters coexist with unreal characters who produce fantasy. So, it is an appropriate novel to discuss fantastic novels. <Parkssijeon> has fantasticality in events and structure involved in characters and space by combining the descending motif with the transformation motif.

The fantasticality has three meanings: First, it is fantastic. Basic principles of the work were completely inversed with a structural quality of arrangement of emotional response and effects. Second, it is a fantasy in lowercase when psychoanalytic thoughts of achievements of hopes appear. Finally, the Fantasy in capital letters means works where fantasticality is the central structure of the text. That is, it is a genre of fantastic literature focusing on fantasticality.

Fantasy has been naturally mixed in literature.

<Parkssijeon> is a novel having all the meanings of fantasy, revealing mental triumphant consciousness and oppressed desires after our nation was defeated by foreign invaders in Byeongjahoran.

Jukgang motif means that Mrs. Park committed a crime in the heaven

and was expelled to the earth. She married Lee Si-baek, but was ill-treated by his husband and parents-in-law because she had ugly-looking. However, she was approved by them through the horse story, the ink water container story, and the court-dress making story and three years later she transformed. She recovered her pretty looking with a help of her father, cleaned conflicts with family, and regained love of husband. The desire to overcome inferior looking at that time appeared through fantasy.

Mrs. Park built Pihwadang to escape ill-treatment of parents-in-law after she was married and lived there. The pavilion was a place of fantasy where she planted mystical trees, resolved the conflicts in family, and predicted the future. It was also a place of mental triumph to inverse the historical defeat of Byeonghajoran and she won a victory at a battle with China by exercising magic.

In respect to transcendent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and events, Mrs. Park predicted invasion of enemy, ordered Gyehwa to kill 100 soldiers and defeated them by lightening.

<Parkssijeon> resolved the desires of our people that we won a victory mentally though we defeated in history, and the transformational fantasy revealed consciousness of women on appearance at Joseon period. So this study concluded that <Parkssijeon> is an exciting novel through which we can guess the desires of the people at that time.

Ⅰ. 서 론

1. 연구목적

환상은 서구에서 일찍 연구되어 왔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관습,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문학경향 등 현실세계를 중시하는 문학작품이 주류를 이루어 온 관계로 환상에 대한 영역이 위축되었으며 그에 따른 연구도 늦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대 이후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을 비롯하여 <퇴마록> 등 사이버 문학을 비롯한 영역에서 환상으로의 회귀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인간이 문학 활동을 해온 이래 신화, 전설, 민담을 통해 환상은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환상의 영역은 신화 전설에서부터 시작하여 SF 사이버 문학[1]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명맥을 이어왔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존재해 온 환상을 단순하게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상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 이론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자인 토도로프를 비롯하여 캐서린 흄, 로즈메리 잭슨 등 서구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고소설의 환타지 성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첫째는 토도로프의 환타지 문학에 대한 정의, 두번째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고된 환타지 문학, 환타지 장르의 성행을 만난다.[2] 우리나라에서 환타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인데, 이는 환타지 문학 및 환타지에 대한 관심, <반지의 제왕>처럼 문학적으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들의 출현,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매체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츠베탕 토도로프의 『환상성-문학 장르에 대한 구조적 접근 (1970)』은 거의 최초로 '환타지'에 대한 장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본격적인 '환타지 문학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도로프는 환타지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중인물과 독자의 불안감 혹은 머뭇거림을 꼽고 있다. 즉 작품 속에서 서술되고 있는 사건이 자연적인 사건인지 초자연적인 사건인지 판단내리기를 주저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문학작품의 환타지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순수 환타지를 '경이(the

---

1) 이 외에도 동화, 유토피아적 알레고리, 몽상, 초현실주의 텍스트, 공상과학 소설, 공포물 등 인간적인 것과는 다른 어떤 영역을 표현하므로 환상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2) 장인숙, 「환타지성을 통해 본 <박씨전>의 주제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marvelous)'와 '기이(the uncanny)' 사이에 놓는다. 특히 기이한 사건에 대한 놀라움이 부재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대표적인 예로 카프카의 <변신>[3]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세기 환타지 문학을 기이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화된 환타지'의 세계로 규정하기에 이르며 더 나아가 문학을 '언어적인 것과 초언어적인 것, 현실과 비현실의 이율배반을 한 몸에 떠맡는' 역설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문학 그 자체에 환타지성이 내재된 것으로 즉 문학의 역설적인 존재방식이 바로 환타지인 것으로 결론을 짓게 한다.

고소설에서 환상 또는 환상이란 정의는 서구의 환상개념을 고소설의 특성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4] 그러나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고소설의 환상과, 서구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로 진입하면서 자연과학의 발달과 실증주의의 등장과 함께 나온 서양소설의 환상성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기 힘들다.

소설 <박씨전>은 병자호란 이후, 그것도 병자호란시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다 사라진 이후의 작품이되 여주인공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순과 여성능력의 관념적 비하에 항거하는 고발문학적 성격이 짙은 점, 여성에 대한 자각과 재인식을 촉구한 의식적 염원이 작품 속에 내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중엽에 형성된 작품이다.[5]

작가는 소설을 창작해 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측면과 이 작품에서 서민의 생활이나 의식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이 밖에도 남달리 강한 자의식을 지닌 진보적 사고의 여성으로서 유식한 양반층의 여성이 쓴 것이라 추정된다.

소설의 이야기 줄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은 앞부분에서 박씨가 이시백과 결혼하게 된 경위와 이씨 가정에서의 박씨부인의 생활을 그의 남편 이시백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있다. 박씨부인의 생김새는 흉하기 짝이 없으나 기묘한 재주와 신기한 술법을 가지고 있어 비루먹은 말을 300냥으로 사다가 좋은 말로 키워 3만 8천냥으로 팔게 하는가 하면 과거보러 남편에게 기이한 연적을 주어 장원 급제를 하게 하며 남편을 도와 그로 하여금 '공'을 세우고 '출세'를 하게 한다.

소설의 뒷부분에서는 청나라 침략자들의 음흉하고 악랄한 행동를 쳐부수고

---

3) <변신>에서는 초자연적 사건이 자연적 사건에 묻혀 놀라움이 부재하는 상황이 보여진다.

4) 김효식, 「<숙향전>의 환상성과 그 의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25.

5) 최경희, 「<박씨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청에게 타격을 주는 박씨부인의 애국적 활동이 그려지고 있다. 박씨부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에 앞서 먼저 이시백과 임경업을 죽이려고 들어온 청나라의 정탐꾼을 적발하여 그 음모를 파탄시키며 청나라 침략군이 쳐들어와 나라의 정세가 위급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피신[6]시키고 몸종 계화로 하여금 적장 용홀대를 처단하고 그의 형 용골대를 굴복시켜 물러가게 한다.

<박씨전>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치욕적 사건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으며 민중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야인이라고 경멸하던 만주족에게 패배한 만큼 민중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소설은 현실적인 패배와 고통을 상상 속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심리적 욕구를 표현한 작품이다.

또한 <박씨전>의 특이한 점은 남성보다는 여성인 박씨부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박씨부인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비범한 인물인데 비하여 남성인 이시백은 평범한 인물로 표현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부장제의 삼종지의에 억압되어 살아야 했던 봉건적인 가족제도에서 정신적으로 해방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와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우수한 능력을 갖추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변신'모티프를 가지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변신모티프는 작품의 구성상 사건 전개의 전환점의 구실을 하고 있다. 박씨부인의 변신은 비범한 부덕과 부공은 물론 신묘한 도술로써 여성의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계기가 된다. 주인공 박씨부인은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실생활에서 부딪히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주요한 문제들, 즉 외모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시댁과의 과제, 나아가서 사회적 능력발휘의 문제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은 작품을 통하여서 상상의 세계에서나마 정신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박씨전>은 도술·변신·이인과 같은 비현실적인 인물이 현실 속에서 미메시스 인물군[7]과 공존하며, 미메시스 인물군과 대립을 통하여 비현실적인 공간

---

6) 박씨가 처소한 避禍堂은 화를 피하는 곳으로 나중에 박씨가 이름모를 나무를 많이 심는 등 신묘한 기운이 넘쳐흘러 청나라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7) 심민호, 「<박씨전>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의의」, 『우리말글학회』30, 우리말글학회, 2004.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도술·변신·이인·귀신 등의 소재가 주는 기이함·경이로움 등을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현실에서 있을 법한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성하여 인생의 진리를 담아내는 현대소설에 비해 저급한 것으로 폄하하는 경향은 문학이 모방 충동

에서 비현실적인 사건을 생성한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인물이 생성하는 사건은 현실을 전복하려 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심의 경계를 허물고자하는 타자의 욕망을 환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박씨전>은 고전소설에서의 환상 논의에 적합한 작품이다.

<박씨전>의 박씨는 여성으로서 가정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서도 활약한다. 이런 여성영웅류의 소설은 <박씨전>외에도 <금방울전>, <방한림전> 등이 있지만 <박씨전>처럼 도술을 부리고 초능력을 발휘하는 소설은 드물다. 양반집의 여자로서 드러내놓고 활약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영웅으로서 활약을 한다. 당시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여성이 갖는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박씨전>의 환상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에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도술을 부리고 환상의 중심에 서는 박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혀 보고 시대가 변하고 고전을 읽는 지금 <박씨전>의 도술 및 환상이 가지는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박씨전>에 대한 연구는 이본 연구, 작품의 구조에 대한 연구, 주제나 사상에 관한 연구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여성중심적 시각에서 허구의 여성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논의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8]

먼저 이본에 대한 연구는 박윤재[9]가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김기현, 신동일, 사재동, 김대숙[10] 등이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김기현은 이본 14종을 필사

으로 성립된다는 미메시스 이론에 의한 것이다. <박씨전>에서는 박씨부인과 박처사가 환상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박씨의 남편 이시백을 비롯하여 시아버지 이득춘인조대왕 등은 미메시스 인물이다. 박씨부인과 박처사는 환상 인물군을 형성하고 이시백을 비롯한 미메시스 인물군과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8) 여정숙, 「<박씨전>에 나타난 현실과 초현실성의 중첩성과 의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 박윤재, 「박씨부인전 이본고」, 『어문논집』1, 중앙대학교, 1960.

10) 김기현, 「<박씨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4.
신동일, 「이조 전쟁소설 <박씨전> 연구」, 『육사논문집』6, 육군사관학교, 1968.
사재동, 「<박씨전>의 형성과정」, 『장암지헌영선생고희기념논챙』, 대구: 同간행위원회, 1980.
김대숙, 「우부현녀설화와 박씨전 」,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본, 활판본, 교주본으로 나누어 살피고, 그 계보를 고대본계 (손낙범본, 대창본)와 한성본계 (세창본, 덕흥본)로 구분하였으며 그 차이점으로 후자에는 시부의 조복 짓는 이야기, 선계의 치마와 용궁의 저고리 자랑, 금봉채로 술잔을 갈라마시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다. 고대본 <박씨전>은 (필사본 1835년 혹은 1895년)을 最古本이자 善本으로 추정하고, 작품명칭을 <박씨전>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작자를 여성으로 보았다.[11] 그리고 김대숙은 그 동안에 소개된 이본 등을 포함하여 새로 10여종의 이본을 소개하면서, 이시백이 평범한 출생을 하는 계열과 기자정성의 결과로 출생을 하는 계열로 나누어 작품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이정미, 이문규의 최근 논의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망각과 배제의 형식으로 은폐되고 억압되었던 욕망의 내용이 환상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억압되었던 욕망들은 충족, 혹은 도피의 형태로 허용함으로써, 욕망의 실체를 긍정하고 그에 대한 대리적 해소를 지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현실이 억압하고 은폐했던 세계, 혹은 그 구성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현실적 질서에 저항하고 그에 대한 전복을 겨냥하는 방식이다. 특히 후자의 방식은 독자들에게 공포와 전율의 심리적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현실적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한다.[12]

구조에 대한 연구는 성현경이 <박씨전>은 <박부인전>과 <이시백전>이 부자연스럽게 결합된 소설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체적으로 전·후반을 독립된 이야기로 보는 입장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통용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김미란, 정명기 등은 전·후반이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다고 하였으며, 신태수는 구성의 통일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어서 최진형은 '혼인- 변신- 활약'을 문제적 사건으로 보았으며, 김현희는 가정내의 갈등과 국가적 차원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완결된 형식의 유기적 구성을 갖추었다고 하였다.[13]

주제나 의미에 대한 연구로, 일찍이 김태준은 <동상기찬>에서 이시백의 부인과 유사한 인물을 발견하고 김문곡의 부인 라씨의 행장에 도술을 첨가했을 가능성과 <황강잡록>, <청풍기>에 나오는 박진사의 사적을 약간 변형시켰을

---

11) 김기현, 앞의 논문
_____, 「<박씨전>의 텍스트와 명칭문제」, 『우리문학연구 』9, 1992.

12) 이정미, 「<박씨전>의 서지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3) 최진형, 「<박씨전>의 이념적 구조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7, 성균관대학교, 1996.
김현희, 「<박씨전>의 주제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박씨전>을 '강계여장군 부랑의 용전한 이야기'와 연관시키기도 하였으며, 또한 남녀가 합심하여 외적을 막고자 한 <소대성전>,<왕장군전>,<장군진전> 등과 <여장군전>의 장수의 전기가 공통된다고 하여 한글소설의 주요독자가 부녀들이었다는 점을 들어 박씨부인을 당시의 이상적 여성이고 독특한 여주인공의 고답적 출세간적 로맨스로 규정하였다.[14] 김기동, 장덕순, 신동일 등의 논의도 김태준이 언급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김미란은 박씨부인의 변신이 작품 전·후반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소녀의 성년식과 입사식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15] 또한 박씨부인의 변신은 곧 조선여성들의 열등감의 극복이라고 하였다.[16] 후에 김장동은 변신의 의미를 정신적인 승리감과 민족적인 우월감의 정화에 있다고 하였으며[17], 백명자는 박씨부인의 삶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때 천상계, 지상계의 순환이 그 하위순환으로 나타나 순환의 연속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박씨부인의 변신은 미모를 되찾게 되는 변신순환과 천상계 선녀로서 득죄로 인해 지상계에 적강하여 지상계에서 인간으로 삶을 누리다가 천명을 천강계와 지상계의 순환으로 보았다[18]. 이어서 정상진은 박씨부인의 신분 격상의 계기로 이해하였으며[19], 이원수는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美醜에 집중했다는 점을 보완하여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와 당대의 과도기적 의식 혼란을 도출해냈다고 하였다[20].

이외에도 박씨부인의 변신 또는 탈갑을 종교적·신화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다. 정정헌은 탈갑을 중심화소로 이해하여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박씨부인의 추모와 피화당을 중심으로 의미를 살려보았으며, 경일남은 박씨부인의 탈갑을 속과 성을 구분하는 종교적 기능으로 이해하였다. 우리 고전문학의 사상적 배경에는 유·불·도의 三敎가 주축이 되어 혼

---

14)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4.

15) 김미란, 「<박씨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_____, 「<박씨전>과 변신의 모티프 」, 『국어국문학』78, 국어국문학회, 1978.

16) 김미란, 「고대소설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17) 김장동, 「<박씨전> 논고 」, 한양어문연구』3,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1985.

18) 백명자, 「<박씨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9) 정상진, 「인물 중심으로 본 <박씨전>의 구조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8.9, 한국문학회, 1986.

20) 이원수,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관」, 『어문학』 제 71집, 한국어문학회, 2000.

합내지는 융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데 <박씨전>의 본격적인 사상연구로는 이인숙의 '<박씨전>과 무교사상'이 있다.

또한 새로운 각도에서 <박씨전>을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고, 그 중 하나가 작품자체의 근원설화를 찾아 그 연관성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씨전>은 상상에 의한 허구이기 때문에 불교소설류와 동궤선상에 올려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파사익왕추녀금강(波斯匿王醜女金剛)에서 <박씨전>의 근원설화를 찾고, 이 근원설화와의 관련성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그 고사는 전체 구조와 주제, 구성에서 <박씨전>과 연원적으로 相符되면서 일찍이 불전과 변문을 통하여 한국에 토착화됨으로써 <金剛公主傳>-<금강공주전>등의 전승유형을 형성시킨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고소설에서의 환타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도선사상에 관한 연구나 환몽소설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환타지는 고전소설에 나타난 도선적 요소, 환몽소설과 전기소설의 꿈이나 이계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즉 고전소설의 구조가 환타지성의 논의 대상이었다.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고전소설의 환타지성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 구조적으로 접근하려는 연구[21]와 단일작품의 환타지성을 밝히려는 연구로 발전하였다[22].

본 글은 <박씨전>의 주인공이 여자라는 측면에 맞추어 갖게 되는 도술 환상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박씨전>의 서사 구조에서 드러나는 도술장면을 자세히 고찰하여 <박씨전>만이 갖는 탁월한 환상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러한 후 <박씨전>이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도술을 펼침으로써 얻게되는 환상성의 효과 등을 살펴

---

21) 김성룡, 「고전소설의 환상 미학」, 양포이상택 교수 환역기념, 『한국고전소설과 한국문학』(상), 집문당, 1998.
김경수, 김성룡 공저 「고전 서사문학을 중심으로 본 환상의 미학적 특성 연구」, 『한국고전비평』,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5.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성심어문논집』제 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22) 신세윤, 「고전소설 속의 환상성 연구-<전우치전>과 <박씨전>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 일사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제 15집, 한국고소설학회 제 13집.
최기숙, 「귀신의 처소, 소멸의 존재론- 『금오신화』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제 24차 『돈암어문학』, 정기학술발표대회, 2003.

봄으로써 문학사적 의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글의 자료는 현전 최고본이자 선본으로 인정되는 필사본인 고려대 도서관 소장 <박씨젼>[23]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환상의 정의를 살펴 본 후 박씨전과 같이 환상이 개입한 신화 및 전설, 작품들을 들어 <박씨전>의 환상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박씨전>의 적강모티프와 변신모티프의 결합, 사건에 유기적으로 드러나는 인물과 공간의 환타지적 기법을 밝히는데 의의를 두며 박씨전이 갖는 환타지성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겠다.

23) 김기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1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Ⅱ. 한국문학에서의 환상성

1. 환상의 정의 및 특징

1-1. 환상의 정의

<박씨전>의 환상을 논하기에 앞서 환상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며 정의된 환상의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상[24]은 그 용어부터가 상당히 모호하다. 환상, 환상적, 환상성, 환상문학 등의 용어는 엄밀하게 규정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 용어의 의미가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이다.[25] 츠베탕 토도로프의『환상성-문학장르에 대한 구조적 접근』(1970)[26]은 거의 최초로 '환상'에 대한 장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본격적인 환상문학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도로프는 환상(the fantasy)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중인물과 독자의 불안감 혹은 머뭇거림을 꼽고 있다. 즉 작품 속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이 자연적인 사건인지 초자연적인 사건인지 판단내리기를 주저하는 일이야말로 문학작품의 환상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토도로프의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순수 환상을 '경이(the marvelous)와 기이(the uncanny)'사이에 위치짓는다. 그러나 실제로 토도로프처럼 엄격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문학 내적인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문학의 환상성을 밝히려고 했던 랩킨은 '환상성을 의미있게 사용하는' 작품과 '환상문학'을 구별함으로써, 토도로프식의 장르론적 접근에 의해 배제되었던 많은 환상적 작품들을 포괄하는 의미의 환상문학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환상'이라는 개념의 쓰임새를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한다. 첫 번째는

---

24) 환상이란 용어는 환타지라는 용어와 대별된다. '환상'은 연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져 온 용어인 반면 '환타지'는 흥미를 위주로 한 용어이다. 학계에서는 심리적인 선을 그어놓고 있으나, 실질적인 선은 없는 상태이다.

25) 김효식, 「<숙향전>의 환상성과 그 의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14.

26) 이 책은 1970년에 『환상문학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되었는데 1975년에 『환상성: 문학장르에 관한 구조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영어판이 코넬 대학에서 번역되어 발간되었다. 이 영역판의 부제가 암시하는 것처럼, 이 책은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환상문학 장르를 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상문학서설』(이기우 역, 한국문학사)이라는 제목으로 1996년에 번역, 출판되었다.

'환상성' (the fantastic)으로, 이는 작품에 설정된 기본원칙들의 완전한 역전(랩킨은 그 예 중 하나로 작품의 초반부에 죽었던 인물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및 이러한 역전으로 야기되는 정서적 감응 및 효과의 배열이라는 구조적 자질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소문자 환상(fantasy)은 작품에 '소망충족'이라는 정신분석학적 사고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대문자 '환상'(Fantasy)은 앞에서 말한 '환상성'이 텍스트의 중심 구조가 되는 작품들, 즉 환상성이 철저하게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환상문학' 장르다. 그는 환상성이 나타나는 모든 서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상소설의 특징을 지닌다고 보고, 도피문학, 유토피아 문학, 탐정문학, 포르노문학 등도 암묵적으로 환상문학에 포함시킨다. 결국 랩킨은 환상문학 장르를 설정하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환상문학이라는 범주 속에서 유형화하여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물론 랩킨은 토도로프처럼 구조적으로 엄격하게 환상문학 장르를 구축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환상문학 장르를 설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반면 캐서린 흄은 모방과 더불어 환상을 문학의 본질적 요소로 환상문학을 아주 포괄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학은 두 가지 충동의 산물이다. 그것에는 바로 모방하고 싶고, 사건들, 사람들, 상황, 그리고 대상을 묘사하고 싶은 욕망인 미메시스, 그리고 주어진 것을 바꾸고 현실을 변형시키고 싶은 욕망인 환상이 있다." 이처럼 흄은 환상을 문학의 본질적인 한 측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학의 하위 장르로서의 환상문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 그 대신 그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작품을 통해 신화적 이야기나, 도피문학, 그리고 우리가 픽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환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다 환상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다소 막연하고 방만한 내용을 수습하기 위해 흄이 마지막 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드롭 프라이의 장르와 양식 개념은 흄이 거부했던 장르론을 끌어들인다는 인상을 준다. 흄은 프라이의 개념을 빌려서 어떤 장르와 양식에서 환상이 일어나며 일어나지 않는지를 도표로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거의 모든 이야기가 환상적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환상문학론이 기존의 장르적 관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27]

그런데 이러한 환상문학에 대한 정의는 주로 서구 학자들이 서양 문학을 대상으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학이나 제 3세계

27) 서강여성 문학 연구회, 『한국문학과 환상성』, 1997, pp.12~15.

문학 작품 및 그 이론들이 배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환상 문학 연구사에서 주로 근대 이후의 환상성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구사적 경향에 기인한다.

동양에서 '환상'의 개념을 살펴보면, '幻想'이라는 단어는 근대 이후 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고전인 十三經 索引에서 幻 또는 '환상' 항목을 찾을 수 없고 근대 이전의 한·중·일 세 나라에서 간행된 한자사전 모두 '환상'의 역사적 용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상'은 고대 문헌에서 보이지 않고 후대에 와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자 중심의 동양권에서의 '환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자주 쓰이지 않고, 비교적 늦게 등장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어원적인 의미로 살펴 본다면, '환'의 字意로는 '변화와 미혹, 요술, 허깨비' 또는 '허무, 변화, 신기'로 풀이하기도 하며 『설문해자』에서는 '환'에 대해 '속이다'의 의미로 정의돼 있다. 주로 '변화하다', '속이다'의 어원으로 쓰여졌던 '환'의 의미가 좀 더 깊고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불교에서 '환'을 수용하면서부터인데, 불교적 의미에서 '환'은 실체가 없는 것을 능히 변화하여 보이는 것, 없던 것이 홀연히 있는 것,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종의 영상이란 의미로 통용되었으며, 불교는 환술을 이용해 진리를 깨우친다는 교술적 목적을 뚜렷이 하는 환법과, 그런 일을 하는 大幻師, 그런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습들이라는 풍부한 용례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환상'역시 일상어라기보다는 불교 용어로 자주 거론돼 왔는데 환상은 실체가 없는 헛것을, 환상은 환술로써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환상은 헛것 또는 寫像이나 감각의 착오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환각 현상을 뜻한다. 즉 '환상'이란 불교적 용어로 '실체가 없는 것'(幻), 즉 假像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환상'의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예문이 一切有爲法 旅夢幻泡影인데 여기서 일체유위법이란 꿈같고 환, 물거품 등등과 같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실체가 없는 것임을 관찰하여 어디에도 집착됨이 없어야 함을 알면 이것이 곧 일체유위법을 여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현실에 대한 불교적 의미로 '현실=幻'으로,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는 인식이다.

그러나 환상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그대로 문학에 접목시키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불교에서 말하는 환상은 '현실이 현상처럼 덧없어 실체가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있는 실재적 현실이 갖는 실상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반어적 어법인데 반해, 문학에서의 환상은 현실이 아닌 또 다른 현실인 비현

실 또는 초현실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환상'은 현실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환상성의 백미라할 『구운몽』에서 환상을 찾아낸다면 대표적으로 작중인물인 성진(양소유)이 '선계'에서 적강하여 '인간계'로 환생하고 다시 선계로 복귀하는 수직적 구조 속에서 찾아지는 이계와의 자유스러운 교섭이지 불교적 의미의 환상이 아니기 때문이다.[28]

여기서 『구운몽』의 환상의 의미는 奇, 異, 怪의 용례에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학적 용어로 자주 쓰이는 '幻想'은 '기이함'이라는 내용으로 더 잘 이해되었고, 이러한 기이함에 대한 추구는 동양 문학사의 중요한 영역을 담당해 왔다.

중국 환상문학은 신화에서부터 태동했으며 육조의 지괴, 당의 전기, 송의 지괴와 전기, 환본, 송·원의 擬話本, 명의 신마소설, 人情小說, 청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중국소설사에서 지괴, 전기, 신마 등의 장르가 포함하는 기이함, 낯설음, 불가해함 등의 요소는 문학의 본질적 속성임으로 간주되어 왔다. 중국문학사는 현실적 요소의 사실적 기록과 아울러 환상 세계에 대한 허구적 형상화 방식이 세계를 이해하는 보편적 방식으로서 채택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唐代에 쓰인 전기소설은 당대에는 도교가 국교로 신봉되었으므로 거의 모든 소설사에서 신선, 귀신, 도술 등이 불교와 도교적 환상의 색조가 깔려 있었다. 중국의 전기 소설은 우리의 나말여초 傳奇文學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우리의 서사문학에서도 기, 이, 괴[29]의 성격을 지닌 작품이 다양한데 괴보다는 기, 이가 함유된 작품이 많으며 이에 대한 문헌으로는 『삼국유사』의 기이, 神呪 편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기이편은 분량면에서도 전체의 반을 차지할 만큼 많은데, 『삼국유사』敍에 따르면, 기이, 편목의 뜻은 "인간의 보편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신이한 사실이며 대업이나 고귀한 존재에 관한 일들"이라 설명되어 있다. 또 『삼국사기』의 「열전」의 <김유신>조 등에서의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인간상 등 奇, 異적 성격을 띠는 작품이 폭넓게 다뤄지고 있다.

---

28)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奇)는 드물고, 본래적이고, 환상적이고, 놀랍고, 기묘한 영역을 이(異)는 일차적으로 차이, 구별짓는다는 의미이며, 이차적으로는 비범한, 현저한, 낯선, 이질의, 괴상한 등으로 무엇이든 규범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괴는 기묘한, 섬뜩한, 변덕스러운, 비정상적인, 불가해한 등을 뜻한다. 이 용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기에 상호교환될 수 있다.

이후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꿈을 통해 이계에 넘나드는 몽유계소설, 도술 등의 이적을 보이는 영웅 소설 등 많은 작품에서 기, 이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 이, 괴의 용어는 동양 환상성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용어로 보인다. 또한 기, 이, 괴는 서양 환상문학의 전범이 되는 토도로프의 '주저, 망설임'과 일맥 상통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도교에서도 찾아지는데, 도교에서의 '환상'의 의미는 불교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도교에서 환상의 의미를 찾는다면 어원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보다 人爲를 거부하고 세속적인 생활과 가치 체계를 초월하려는 초월성에 대한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 '초월성에 대한 믿음'은 도교의 중심을 이루는 신선사상에 찾아 볼 수 있는데 신선사상은 자연발생적 종교인 고대의 민간신앙인 신선설에 음양, 오행, 예술, 점성 등의 명제와 이론에 주술적인 신상을 합해 불로장생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長生不死라는 인간의 욕망이 도교의 환상적 중심 기제로서 '신선'의 존재를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도교는 유한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장생불사의 욕구와 현세의 역경을 피해 선경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선인들의 이상향 염원 속에 피어난 상상력의 응집체로 도교는 기저에서부터 '초월성'이라는 환상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도교의 상상력은 무엇보다 문학적 소재로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셈인데, 모순과 갈등의 현실사회에서 인간이 갖는 한계를 풀어내기 위해 도교는 작품에서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색채로 용해되며 한계의 해소의 출구로 사용돼 왔다.

지금까지 고소설 용어에서 '환타지'라는 용어는 주로 ①현실 속에서 현실적-합리적-정상적인 것과 공존·대립하는 일종의 불가해한 신비체험, ②가상적 허구를 통해 창조된, 일종의 의도적인 반현실, ③현실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인간의 심리 속에 내재된 어떤 보편적 성향.[30] 세 가지 의미 혹은 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①이든 ②든 모두 궁극적으로 현실적-합리적-정상적인 것만을 강요하는 현실의 구속이나 억압을 넘어서려는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30) 랩킨 또한 환타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계들은 설정한 바 있다. (1) the fantastic ~한 이야기의 기본 원칙들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면서 일련의 특수한 감정적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적 실체, (2) fantasy~ 일상적인 뜻으로 욕구충족이나 해소 등과 관련된 것 (3) Fantasy ~환타지적인 것이 작품의 지배적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장르(황병하, 「환상문학과 한국문학」『세계의 문학』1997년 여름호, p.143.

대동소이하지만 ①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것'과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그 독특한 미적 효과가 발휘되는 반면, ②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대립이 없거나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①이 독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주저하게 만들며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환타지라면 ②는 독자들을 이완시키고 적응·동화시키며 그들에게 대리만족을 제공하여 즐거움을 주는 환타지라고 할 수 있다.

①의 경우는 전설이나 지괴 같은 문학양식에서부터 연원하는 것으로, 환타지 혹은 환타지적인 것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 층위를 이루고 있다. 한국 고소설에서 이와 같은 개념의 환타지를 가장 독특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전기소설은, 작품에 따라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환타지는 동시대의 일상경험을 지배하는 현실원칙에 비추어 불가능하고 불가해한 사태로서 독자나 작중인물에게 경험된다.

②와 같은 환타지 개념은 주로 조선후기부터 성행하기 시작하는 대중소설 유형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정한 성향을 포착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특히 환몽소설이나 영웅소설과 같은 소설의 대중화와 함께 유행하기 시작한 유형들인데, 사실 이 대중소설 유형들이 지향하는 노골적인 반현실성을 포착하기에 '환타지' 이라는 용어만큼 적절한 것도 없어 보인다. 예컨대 조선후기 중하층 독자들의 무의식적인 욕망-무공을 통한 신분상승과 애정성취를 꿈꾸는 나르시즘적인 욕망-을 잘 포착하여 그것을 상상적으로나마 충족시켜주는 영웅소설의 반현실적인 서사세계를 '환타지'라는 용어로 가장 잘 표현된다. 이와 같은 환타지 이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갑갑하고 단조로우며 고된 노동의 현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점차 세속화되어 가는 현실, 그래서 소설의 환타지를 통해서만이 일탈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일 것이다. 이미 가상적인 허구임을 전제하고 받아들인 환타지야말로 더욱 독자들을 매혹시키고 강렬한 동일시를 유발하며 서사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 환타지 개념의 단절, 혹은 새로운 환타지성의 대두를 조선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생산관계의 일대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의 대중화와 세속화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점차 확산되면서 중세적 생산관계를 둘러싸고 있던 신비체험으로서의 환타지는 점차 그 설득력을 잃어가는 반면, 대중적 오락물 속에서 완연한 가상적 허구로서의 환타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③의 환타지 개념은 특히 정신분석학으로부터 문학 연구에 이입된 용법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범주와 구별된다. 정신분석학[31]에서 환타지는, 가장 넓

은 의미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타자의 욕망과 관계지우고 구성하며 무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환타지는 인간의 인식이나 정체성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나 자아(ego)자체가 환타지의 산물일 수 있다. 정신분석학에서 사용되는 보다 좁은 의미의 환타지는 주체의 욕망이 방어적 과정에 의해 다소간 변형된 채로 실현되는 상상적 시나리오 혹은 장면을 말한다. 환타지는 주체의 욕망을 무대화하는데, 라깡에 따르면 주체의 욕망이란 항상 타자의 욕망에 대한 욕망이다. 타자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망, 타자가 욕망하는 그 대상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 주체를 복잡한 욕망의 상호변증법적 관계 속으로 밀어넣는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 고전 문학의 환상성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기, 이, 괴가 내포하는 기이함을 언급할 수 있다. 그렇다고 환상성을 논함에 있어 이 용어가 환상성을 범주화하는 용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기, 이, 괴가 갖는 성격적 특성은 동양적 문학이 갖는 환상성의 성격을 규명하는 무엇보다 유용한 용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 이, 괴의 특성은 종교에서 많은 소재를 취하고 있음으로 보아 종교와 밀접한 관계속에서 해석될 수 있음인데, 이는 환상이 종교적 기반하에 그때 그때마다 작가의 상상력과 맞물리면서 만들어낸 상상적 창조물로, 작가의 일정한 의도하에 연출되는 현실에 대한 현실적이지 않는 비현실, 또는 초현실의 모습을 띤 포괄적 의미를 지칭한다 하겠다.[32]

환상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서양과 동양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 이, 괴의 특성이 토도로프의 주저, 망설임의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흡의 "문학은 두 가지 충동의 산물이다. 그것에는 바로 모방하고 싶고, 사건들, 사람들, 상황, 그리고 대상을 묘사하고 싶은 욕망인 미메시스, 그리고 주어진 것을 바꾸고 현실을 변형시키고 싶은 욕망인 환상이 있다."의 정의로 보더라도 <박씨전>은 환상문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박씨전>에서 신선이나 금강산이라는 공간은 도교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

---

31) 현실적으로는 망각과 배제의 형식으로 은폐되고 억압되었던 욕망의 내용이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 표현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억압되었던 욕망들은 충족, 혹은 도피의 형태로 허용함으로써, 욕망의 실체를 긍정하고 그에 대한 대리적 해소를 지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현실이 억압하고 은폐했던 세계, 혹은 그 구성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현실적 질서에 저항하고 그에 대한 전복을 겨냥하는 방식이다. 특히 후자의 방식은 독자들에게 공포와 전율의 심리적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현실적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32) 김미령, 「한국몽유소설의 환상기법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을 수 없다. 박씨의 외모가 그로테스크한 추녀였다는 것도 기, 이, 괴가 갖는 성격을 잘 갖추고 있으며 박씨가 도술을 이용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집안의 며느리로, 여성영웅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여기에서 드러나는 비범성은 환상적이다.

1-2. 환상의 특징

환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특징지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호이질적인 것들의 교류와 소통이다. 타자[33]와의 소통 가능성을 상실한 개인성은 문학 공간에서 종종 불안이나 독선적 확신, 편집증적 상황을 통해 자기를 표출한다. 이러한 소통 불능성은 개인의 사회적 소외나 억압을 의미하지만, 작중 인물이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소통의 매개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상실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도피할 때, 문학 공간에서 종종 이는 환상의 세계로 표현된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소통 불가능한 개인적 체험이 자기 확신적 환상의 세계로 표현된 경우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에 쓰이지 못하거나 화해하지 못하는 인물들로서, 고독과 소외를 체험한다. 내성적이고 자폐적인 성품의 주인공들은 이계의 존재들과 친화적 관계를 맺는다. 이계의 존재들은 주인공들의 내면에 억압된 심성을 대신 읽어주고 표현함으로써 주인공의 거울 속 환영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귀신이나 이계인물, 혹은 낯선 세계 그 자체라는 점에서 주인공의 쓸쓸한 환영, 화해할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이다. 이들은 날이 새거나 꿈에서 깨어나면 곧 사라지는 아스라한 음영이다. 이계 인물과 교유한 주인공들은 현실로 돌아온 뒤, 자취를 감추거나 죽음으로써 고독과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인공들은 개인적 체험의 형식으로 이계 인물들과 소통하며 이를 타인에게 전달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데, 이는 그 만남이 내면과의 해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계 해체의 환상성은 상상의 질서에 속하거나 초자연적 현상에 속한다고 여겨 왔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등장 인물의 믿음 체계를 동요시키는 메

33)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물에서 타자성을 명명하는 것은 저자의 이데올로기적 전제들과 그것들이 기원하는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전제들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타자성은 초월적인 것으로서 천사, 악마, 천국, 지옥, 종교적 환상과 꼬마요정, 요정, 난쟁이 등 이교적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자연적 질서 혹은 세속적 질서 속에는 타자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공포와 주관적 지각을 통해 세계를 변형하려는 욕망의 투사라고 보았다.

커니즘에 관여한다. 삶과 죽음, 자연과 초자연, 과거와 미래, 인간과 동물 등 익숙한 범주들 사이에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경계가 지워지는 순간 독자들은 자신이 환상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알게된다.

경계 해체를 통한 상호 이질적인 것들의 교류와 소통의 인식론적 근간은 萬物有靈論, 혹은 氣化宇宙論으로 표현되어 온 고대적 애니미즘에 있다. 프로이트는 애니미즘이란 세계가 호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영적 존재들로 가득차 있으며, 이들이 자연현상들의 원인이라고 보는 자연철학을 구성한다고 정의한다. 생명의 무한한 연장과 불멸성을 당연시하는 애니미즘적 사고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해체하고 변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고대적 환상 문학의 근간에 형성한다.

<동명왕신화>에서 해모수가 승냥이로, 승냥이에서 매로 변하는 변신 모티프는 영웅적 자질인 트릭스터 능력을 표상한다. 변신한 몸의 세계에 대한 지배력은 곧 영웅적 자질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다른 사물이나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물이나 존재를 포함하는 세계 질서에 관한 인지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표지한다. 신화에서 변신을 통한 육체적 경계 해체나, 이를 통한 대상 세계와의 합일 지향성은 주체와 세계 사이의 연속성이나 근원적 일체성을 전제로 삼는다.

<박씨전>에서 박씨가 추모에서 미녀로 변신하는 것은 3년간의 박대와 멸시 속에서 죄를 씻고 완전히 인간세계에 적강한 것으로 유교사회에서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고자 함으로 인간세계에 적응하고자 한 것이다.

『삼국유사』의 <김현감호>에서는 인간보다 인간적인 호랑이 여인이 인간과 나누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신화적 세계관이 망각된 뒤에 등장하는 변신담은 공포와 불안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신화 시대 이후의 변신담은 현실에서 아직 합리적 해답을 얻지 못한 불확실성에 대한 표현이거나 현실이 억압하고 있는 욕망이 폭력적 위반을 범하는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신은 자연적인 형식들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환상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자로 변하는 남자, 새나 짐승으로 변하는 어린이, 식물·바위·나무들과 상호 교환되는 동물들, 형상·크기·색채의 마술적인 전환들은 환상적 양식이 주는 주된 즐거움들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씨전>은 추녀에서 미녀로 변신하는 것은 일말의 쾌감을 안겨주며 당대 여인들의 욕망을 풀어놓는다.

두 번째, 이인이나 신선의 등장이다. 이인이나 신선은 현실적 존재이지만

그들의 주된 영역은 현실을 넘어선다. 이들은 현실을 변화시킬 정도의 제도적 힘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예언해 주고, 정치적 격변이나 전쟁 등을 예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인이나 신선은 현실적으로 소외된 자들로 이해되고 있으나 현실의 제도나 논리, 상식적 합의 등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실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자발적인 탈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들이 현실에 나타나자신의 존재를 증거하려 하며 도움을 주는 이유는 현실에 대한 환멸과 동정, 자비를 증거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박씨전>에 등장하는 박처사 또한 신선이라는 암시를 하며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패배 후 희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초현실의 인물을 등장시켜 또 다른 희망을 꿈꾸었던 것이다. 박씨는 환상의 환상 인물로 알려지지 않은 집안의 자식으로 추녀이지만 비범한 능력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또한 청나라가 침입해 올 것을 알고 이를 예언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청나라를 무찌르는데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다.

세 번째 꿈을 소재로 한 예언 및 현시다. 꿈은 우리가 그것이 만들어지는 유래와 과정을 온전히 설명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성적 사유 영역이나 심리적 인지 영역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꿈은 생활인이 일상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있는 정신작용, 암시작용, 신과 교섭하는 공간으로 해석해 옴으로써 풍부해져 왔는데, 우리의 문학 행위에서도 적극적인 형상화의 조명을 받아왔음이 문학사를 통해 확인된다. 아주 오래된 신화에서부터 민담이나 야담, 몽유록, 소설에 이르기까지 꿈 이야기의 연원은 길다. 서사 문학에 등장하는 꿈의 장치는 정교하게 변용됨으로써 전체적인 서사 구조에 기여한다. 문학적 꿈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서사적 기제인데, 대체로 신성 현시공간, 교혼공간, 상징과 예시의 공간, 철학적 사색과 성찰의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박씨전>에서 박씨 또한 꿈을 통해 미래를 현시하며 예언을 한다. 신과 교섭하며 호국의 침입자에 대비하기도 한다. <박씨전>에서도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꿈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것이다.

꿈을 통한 자기실현의 욕구는 고전작품에서 많이 수용되어 왔는데 몽유록 소설이나 한단지몽같은 이야기가 그것이다. 꿈이라는 장치를 빌어와 불가능한 현실을 꿈속에서나마 실현시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이다.

1-3. 지형학으로 본 환상

환상은 세가지의 지형학을 확보하고 있는데 환상의 인식론, 환상의 존재론, 환상의 심리학이 그것이다. 환상은 문학에서 이 세 가지의 지형학을 형성하고 있는데 환상의 인식론적 지형학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문학에서의 환상이 현실에 대한 재현을 추구하는 리얼리즘의 세계와는 달리 현실적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미학적 인식론의 방편으로 동원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환상의 존재론적 지형학에서의 주체, 타자, 세계의 관계성도 살펴보고자 한다.[34] 환상의 심리학적 지형학에서는 환상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환상이 생성해 내는 기능과 효용 등에서 환상이 문학에 어떻게 드러내는지 망라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지형을 통한 환상의 구도 속에서 박씨전의 환상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환상문학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가상하거나,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세계를 가시화함으로써 현실계와는 단절된 독자적인 세계로 탄생된다. 이를 실현시키는 실제적인 도구는 말들을 질서화하고 이야기를 엮는 플롯에서부터, 그것이 담아내는 서사 내용, 나아가 이미 있어온 것으로 간주되어온 익숙한 플롯을 풀어버리는 해체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35] 이처럼 환상의 세계는 그것의 창조주인 작가에게로 환원되는 고립된 세계가 아니라 독자의 수용을 통해 비로소 사회성을 지닌 개방사회로 완성된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환상문학은 그것이 현실에는 없는 것을 가상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상상활동의 범주로 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단순히 현실을 허구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 그럼으로써 기존 질서를 요동시키는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상상과는 구분된다. 새로운 세계를 창안하는 환상문학에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동을 요청하거나 낯설음을 통해 독자를 경이

---

34) 황국명,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환상기법 연구」, 『인문사회과학논총』6,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9.
최기숙은 문학에서의 환상은 세계 인식의 특정한 시선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서, 질서화된 세계의 이면에서 새롭게 기호의미를 완성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상력의 표현영역으로 이해했다. 그는 환상을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와 타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를 표현하는 문학적 영역을 점유하는 새로운 '인식론적 지형학'을 구축과 인간이 억압하거나 은폐했던 욕망들을 해방시키고, 현실의 질서나 법칙들이 배제한 요소들을 복원하는 반문화적인 힘을 행사함으로써 환상의 심리학적 지형학을 구축의 두 측면에서 환상을 연구하였다.

35)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pp.73~110.

의 세계로 안내하게 된다.

<박씨전>은 당시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우위점을 내세우면서 여성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미인을 추대하는 사회에서 추녀를 등장시켜 독자를 주목시켰으며 여성의 미모만을 보는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세계를 언어적 상상의 구조물로 형상화한 사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환상적으로 창조된 세계는 현실의 세계를 모방한 대안적 이상 세계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 모형은 체험자와 주관적 세계 이해가 반영되며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소외되고 현실을 비판하고자 이상세계를 그려내어 도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의의『대관재몽유록』은 몽유자가 꿈에서 이상화된 문장 왕국을 체험하고 관직과 관복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꿈 속 세계는 몽유자의 주관적 문학관에 의해 재질서화 된다. 그러나 몽중세계의 탄핵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깨어난 주인공이 "희미한 등잔불이 가물가물했고, 병든 아내는 내 옆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은 꿈의 체험이 초라한 현실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환기시킨다.

문학에서의 환상은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와 타자,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를 수반한다. 이는 미메시스의 세계에서는 재현과 묘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지만, 환상은 현실이 은폐하거나 억압하고 있던 이면의 진실을 가시화함으로써 재현의 표상 체계가 도달할 수 없었던 감추어진 세계, 배제된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표상 체계를 구축한다. 현실에서는 없는 것, 혹은 불확실하거나 미신과 광기의 투영물로 간주되는 감추어진 타자성의 영역은 문학에서 환상적 존재로 명명됨으로써 은폐와 억압의 현실적 질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다. <박씨전>에는 박씨를 환상적 인물로 등장시켜 여성의 사회적 진출 욕구를 표출한 것이다. 병자호란의 패배 후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실망을 느꼈을 것이고 박씨라는 환상인물 속에서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불만감의 표현을 드러낸 것이다.

문학에서의 환상은 타자와 주체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그 내용 또한 지배하는데, 이는 현실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현실 바깥의 존재들과 개방적 세계를 재구축하는 형태로 제안된다. 그 결과 환상은 현실적으로는 배제되어

무의식적 심층에 억압되었던 초자연적 존재나 그들의 세계가 부활하는 형태로서 혹은 이들이 현실과 소통하며 현실의 내용을 바꾸어가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다시 <박씨전>으로 돌아가서 박씨의 아버지는 신선으로 묘사되는 듯 하지만 큰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박씨도 비록 추하지만 시아버지가 비범하게 보고 잘 대해 준다. 박씨는 현실 세계에 다소 순조롭게 들어와 자신의 지형을 넓혀간다.

다음은 환상의 심리학적 지형학이다. 문학에서의 환상은 현실적으로는 부재하지만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욕망이 가시화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현실적으로는 망각과 배제의 형식으로 은폐되고 억압되었던 욕망의 내용이 환상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억압되었던 욕망들은 충족, 혹은 도피의 형태로 허용함으로써, 욕망의 실체를 긍정하고 그에 대한 대리적 해소를 지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현실이 억압하고 은폐했던 세계, 혹은 그 구성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현실적 질서에 저항하고 그에 대한 전복을 겨냥하는 방식이다. 특히 후자의 방식은 독자들에게 공포와 전율의 심리적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현실적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환상은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식론적 지형학, 존재론적 지형학, 심리학적 지형학 등으로 나누어진다. 환상은 어느 한 부분의 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지형학을 형성하며 이루어진다. <박씨전>은 이 세 가지의 지형학을 밑바탕으로 박씨가 변신하는 것은 낯설음을 만들며 기이를 경험하게 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를 전복시키고자 한 것이다.

2. 한국의 고전작품에서의 환상

한국 문학사에서 '환상'은 신화나 전설, 민담 등 서사 문학의 원형적 형태에서부터 발견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대문학에서 발견되는 '환상'의 요소는 차라리 본질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사에서 '환상'은 줄곧 소외된 주변 장르로서 존재해 왔다. 이는 현실성을 존중하는 유교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환상'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했던 데에도 기인하지만, 전통적으로 조선후기까지 '환상'이 표현되는 주된 문학 양식이었던 서사 문학, 구체적으로는 '소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근간해 있다. '怪力亂神'을 거부하고 述而不作의 전통을 존중해왔던 유교문화권에서는, 경전이나 전거에

의거하지 않고 온전히 글쓰는 이의 주관과 상상력에 의지해 완성된 글은 정통적 문학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환상은 설화나 신화, 구비서사물에서 기꺼이 요인되며 향유되어온 서사 구성의 기제이다. 고소설에서도 환상적인 부분을 제거하면 이야기의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은 지대하다. 고소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환상성은 문학의 정당한 소재이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간주되었다. 소설에서 현실과 환상은 이원화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간섭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현실적인 시·공간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 공간으로 운용되었다. 환상 세계를 통한 꿈의 형식들은 현실과 비현실 세계와의 交遊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죽은 자와의 교유', '異界 탐색', '사물과의 대화' 등이 대표적 양식이다. 이와 같은 전기적 요소들은 영웅소설에서 도사나 신적 존재와의 만남이나 天人謫降의 화소로 정착함으로써, 하나의 완벽한 구조적 틀로 자리잡는다. 특히 본래 천상계의 일원이었던 인간이 벌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적강 화소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인간 존재를 삶의 무한한 연속선상에서 해석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고소설에서의 환상적 요소는 또 작중 인물의 존재 의미를 해명하고 운명을 판독하게 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대체로 출생담의 구성을 통해 실현된다. 주인공들의 부모는 祈子致誠(아들낳기를 기도함)을 하고 신들의 배려로 아이를 낳는다. 이 때 부모들은 태몽을 통해 자기 아이들의 신성한 근원에 대한 환상적 정보를 얻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인간이 생물학적인 관계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운영의 질서에 참여하는 과정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된다. 고소설에서 환상 요소는 주인공에게 위기 예고와 미래의 암시, 서사 세계의 필연성 강화, 윤리적 자연관의 구현, 통과 의례적 관문의 역할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꿈과 현실에 관한 형이상학적 성찰을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구운몽』은 작품 전반에 걸쳐 현실과 꿈의 관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의 여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정교하게 언어의 구조물을 축성하면서 동시에 그 행위를 끊임없이 회의하도록 하는 독특한 서사구조를 취하는데, 이는 현실과 허구를 사색하는 유용한 도구로 나아가 소설과 현실의 관계, 꿈과 현실의 관계를 사유하는 적절한 도구로 채택되었음을 보여준다.[36]

한국문학에서 환상은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신화, 전설, 민담에서 보여지는 환상, 그 여세를 이어가 나말여초의 문학, 또한 꿈을 매개로 한 몽유록, 도술

36) 최기숙, 앞의 책

을 부리며 깊은 산속에서 수천년을 산다는 이인담과 신선전에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국 영웅신화나 전설, 민담 등 초기 문학 양식에서부터 환상은 세계 이해의 독특한 방식이나 그 결과물로서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왔다. 신화와 전설, 민담을 수록하고 있는 『삼국유사』에는 성인의 탄생과 제왕의 창업에 따른 기이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 초기 문학사에서 환상의 풍부한 자료적 원천을 제공한다.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로 변용될 수 있다는 변신 모티프는 주로 건국신화에서 다루어지며, 용과 같은 상상 동물도 상징적인 형태로 등장한다. 천-인, 인-물, 인-귀 감응을 다루는 애니미즘적 발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류교혼, 인귀교혼 등의 감응의 세계와 환생담 등이 실려 있다.

신화와 더불어 전설[37]의 세계에서는 우리 삶의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기반을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남긴 실패한 흔적으로 설명한다. 전설은 삶의 물리적 근거를 설득시키는 서사체의 형식을 지닌다. 전설에서 증거물들의 세계는 환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실재하는 세계로서 제안된다. 전통적으로 전설의 환상성은 이 세계의 실재성에 대한 비극적 인식, 삶의 근원적 질료들에 대한 비극적 전언을 포함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하나의 의미있는 해석을 제안하였다. 실패한 흔적들이 이 세계의 질료를 형성하고, 관념들의 대체물들을 구성하며, 서사의 지형학을 완성해가는 것이다.

신라말기에서 고려초기에 향유되었던 서사 문학 중에는 『殊異傳』逸文과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 列傳등이 전해진다. 신라 말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殊異傳』에는 경계 해체와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 기이한 단편적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阿道>, <圓光>에서는 승려들의 신이한 탄생, 질병 치유력, 신과의 만남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불교의 초월성과 관련시켰으며, <寶蓋>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와 정성의 힘을 통해 종교적 기적을 이야기했다. <迎烏細烏>와 <脫解>는 신화의 흔적을 간직한 이야기로서, 해와 달을 인격화된 모습으로 전달하거나, 건국 영웅의 난생 모티프를 빌어 죽음도 초월하는 사랑의 힘을 서사화했다. <최치원>은 죽은 여인들과의 사랑을 통해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개인의 내면성을 투사했으며, <선녀홍대>는 같은 내용의 축약본이다. <地鬼>와 <心火繞塔>은 선덕여왕을 사모하여 불꽃이 되어버린 지귀의 이야

36) 위앤커와 루쉰은 신화의 주인공이 인간화되면서 전설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위앤커, 1987:22-23; 루쉰, 1998:42). 조동일은 전설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세계가 우위에 서는 서사 문학으로서, 세계의 횡포는 자아에게 세계의 경이로 나타나고, 자아는 세계의 경이 때문에 좌절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조동일, 1997: 117-118)

기이다.

<老翁化狗>나 <竹筒美女>는 이인담을 통해 평범한 인물들의 신이한 능력을 다루었으며, <虎願>은 호랑이와 인간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조건과 사물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는 만물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적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수이전』에 수록된 작품이 모두 환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선덕여왕의 지혜가 기이함의 요소로서 다루어진 <선덕여왕>이 그 예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환상적 이야기들은 꿈과 人物交歡모티프, 불교적 초월성 등과 관련된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조선 전기 서사 문학 중 꿈의 환상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양식은 夢遊錄이다. 몽유록은 꿈이라는 환상적 매개를 통해 현실에서 억압되었거나, 은폐된 욕망을 표출하고, 지나간 시간성을 복원시키며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려는 문학 양식으로 정착했다. 1529년에 창작된 심의의 『대관재몽유록』은 몽유록의 효시작인데, 꿈 속에서 최치원이 천자로 있는 문장 왕국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16세기에 창작된 몽유록으로는 꽃을 의인화한 <안빙몽유록>과 문방사우를 의인화한 <서재야회록> 신광한, 『企齋記異』등이 있다.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에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념적 대응을 보인 이규보의<夢驗記>, 남효온의<睡鄕記>, 성운의 <醉鄕記>, 임제의<元生夢遊錄>등이 창작되었다. <柰城誌>, <金華寺夢遊錄>, <泗水夢遊錄> 등에서는 역대 제왕이나 학자들의 서열을 매기고 재질서화함으로써, 현실에서 자연화된 세계를 전복시키고 주관적 세계를 축성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

몽유록의 서사적 기원은 '꿈'과 '현실'의 관계 사유를 문제삼는 서사적 모티브와 관련된다. 간보의 『수신기』焦湖廟 이야기나 한단에서의 꿈을 다룬 심기제의 『枕中記』등이 그 예인데, 여기서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꿈'의 모티프가 동원되고 있다. <원생몽유록>에서 확립되고 <금생이문록>에서 계승된 몽유록의 양식적 특성은 임란과 병란을 겪으면서 역사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진다.

'이인'이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잘 드러내지 않는 인간 부류를 지시한다. 신선이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관념된 불로장생의 상상적 인간을 말하며, 신선전이란 바로 이 신선의 傳이다. 조선조에 성행한 이인담과 신선전은 조선조 질서에 포용되지 못하고 仙術을 통해 방달하고 초

탈한 삶을 추구했던 인간의 삶에 대한 서사체를 의미한다. 이들이 方外의 삶을 택한 이유는 자신의 신분적 제약이나 정치적 불우, 혹은 사회적 압박이나 경제적 곤란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실에서 용납되지 못했거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신선전은 최치원의 『先史』로 소급되지만 활발한 창작은 17세기 초부터이다. 16세기 이래로 성행한 이인 설화는 17세기 초에 허균에 의해 '신선전'으로 전환된다. 17세기 허균과 홍만종에 의해 성립된 '신선전'은 신선 동경이 주조를 이루는 데 반해, 18·19세기의 신선전은 신선 동경은 물론 隱逸之士로서의 동경과 연민, 작가의 好奇趣向을 반영한 작품이 많고, 閭巷의 세태를 보이기 위한 저작도 있다.

19세기에 유재건에 의해 집필된 중인들의 전기집 『異鄕見聞錄』의 「승려·도가류」에는 미천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싣고 있다. 입전된 인물들은 거지, 승려, 거사, 처사, 상인, 하급관리 등 중인이나 미천한 신분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로서, 능력이 있으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 예언가, 혹은 특이한 취향을 지니고 개성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異人으로 조명되었다. 이들을 기술하는 서술자의 시각은 '경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도적 인간과 대비되는 소외된 사람들의 능력과 가치를 환기시킴으로써 신분 위주의 조선시대 사회상을 재평가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권력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탐욕을 멀리하면서도 이러한 면모를 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간직해 온 장상현을 이인으로 조명한 것은 권력욕을 따르는 당대인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여준다.

이인들은 현실의 논리를 초월하지만, 현실적 시·공간 속에 살아가거나, 간헐적으로 등장하여 자신과 인연을 맺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지역을 점유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현실적 등장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실적 제도나 논리가 전면화되는 것에 제동을 걸어, 합의된 논리 바깥에 또다른 법칙이나 우주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상과 같은 고전작품에 내재해 있는 환상은 <박씨전>의 환상의 요소에 기본적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박씨전>은 설화에서 화소를 가지고 이후 소설로까지 쓰여지게 된다.

Ⅲ. 박씨전에 나타난 환상성

1. 적강 모티프와 변신 모티프의 결합

원시 생명체가 지구상 가장 뛰어난 지성을 지닌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에는 3백만년전, 유인원이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한 사실을 국조신화에 비추어 볼 때, 오천년 전에 곰이 웅녀로 변신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조신화의 모티프는 보통 동굴 신화의 모티프에 해당하는데, 이 모티프는 후에 건국신화 뿐만 아니라, 민속·설화·민담과 고소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국조신화에서 변신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인간·동식물·광물·정령 등의 변신에 의해 유형화되어 있다. 이를 또 세분하면 인간 변신의 경우 인간화 인간·인간화 식물·인간화 동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신화에서 변신의 기원은 국조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곰이 웅녀로의 변신은 변신의 전형을 이루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국조신화에서 곰의 변신은 부분 변신의 차원을 넘어 신체적 변신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정신 영역까지도 獸性이 신성성으로 완전 변신을 이루었다. 곰의 변신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며, 웅녀가 아들 낳기를 신단수에 빌었을 때, 환웅이 나타나 가혼으로 웅녀를 품어 단군을 낳은 것, 또한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성취한 것이다.

고소설에서 나타난 변신은 이런 국조신화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는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고소설에서 변신은 국조신화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선업을 행하면,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되어 밝고 희망찬 미래지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소설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는 국조신화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라는 것은 윤경수[38]의 의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박씨전>의 변신모티프 및 적강모티프 결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조신화에서 곰이 웅녀로 변신한 것은 신분상승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곰의 변신은 한국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것은 신분상승과 외모의 변신을 한 <박씨전>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국조신화에 의하면 곰과 범이

38) 윤경수, 「고소설과 국조신화의 변신모티프 연구」, 『비교문화연구』9, 익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8.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해 환웅에게 그 방법을 물었을 때 환웅은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금기일광으로 동굴에서 100일 동안 지내면 동굴에서 바뀌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곰과 범은 실천에 들어가 범은 동굴생활을 포기하고 곰만이 감내해 웅녀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곰이 웅녀로 변신함은 한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 입사식과 같다.

이 동굴모티프는 입사식에서 통과의례적으로 겪는 고난극복의 한 과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곰과 범이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금기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동물은 인간보다 몸의 부위가 활동하는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고 능력이 뒤떨어져 있어 문화·문명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생겼다. 그러나 인간은 고등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이지만 곰과 범은 동물자체에 불과한 것이다. 즉 신은 상급이고, 인간은 중급, 동물은 하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곰이 동굴에서 금기생활을 실천했던 까닭으로 하급에서 중급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지모신으로 변신한 원모(stammutter)이다. 흔히 서사문학에서 주인공이 적강의 동물로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천상에서 옥황상제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으로 본다. 국조신화에서 등장한 곰과 범이 이승에서 동물로 태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천상죄로 인해 동물로 태어난 것이다. 천상의 죄는 그 죄에 상응하는 죄를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동물로 태어나 그 징벌로써 동굴생활을 한 것이다. 곰이 웅녀로 변신한 것은 동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조신화에서 곰의 탄생을 서사문학의 경우로 적용시키면 적강된 화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천상에서 선관이 옥황상제에게 미련한 행동을 했던 관계로 만물 중에서 그 미련함에 대한 죄를 일깨워주기 위해 곰으로 적강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여튼 곰의 탄생은 천상에서 미련한 행위로 노여움을 사서 그 벌로 태어나 죄를 벗기 위한 입사식과 같은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국조신화에서 곰을 동물자체로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곰씨녀로도 볼 수 있다. 단군이 부족연맹국가를 탄생시키기 전에는 각 씨족들의 동물토템으로 자기 씨족관념을 나타냈다. 환웅이 천신족이라면 범은 예족이고 고구려족은 곰족이었다고 한다. 환웅은 천하를 교화해 홍익인간의 이상을 폈기 때문에 천신족으로서의 위엄과 신성성으로 각 씨족들간의 존경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범씨녀와 곰씨녀가 환웅을 찾아와 환인하는 방법을 물었다는 것은 환웅과의 혼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두 여자가 나타나는 것은

혼인에 대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기생활로써 감내하는 생활을 하면 환인할 수 있다고 환웅이 알려준 것은, 환웅이 배우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험인 것이다. 두 여자 중 범씨녀가 포기하고 곰씨녀만이 고난을 극복하는 생활을 감내했다는 것은 지상족의 비속성을 제의적 죽음과 같은 동굴생활로써 죄를 씻어 냈다고 할 수 있다. 환웅은 천신족이므로 지상족과는 결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천신족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지상족인 곰씨녀에게 신성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동굴생활을 하게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웅녀로 변신하게 한 후 다시 신단수 아래에서 지모신으로 변신케 해 비로소 환웅은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은 것이다. 원칙적으로 환웅과 웅녀와의 관계는 환웅이 사람으로 변신한 웅녀를 임시로 품어주어서 단군을 낳았다는 것은, 천신족의 위엄과 위신을 세우기 위해 웅녀와 정식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가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곰을 웅녀로, 다시 지모신으로 변신케 한 후 환웅이 웅녀와 가혼으로 단군을 낳았다는 것은 나라굿에서 연회된 것으로 본다. 이것으로써 단군이 각 씨족들을 통일해 고조선을 건국할 당시에 무교가 성행했다고 볼 수 있다. 환웅이 신단수에 내려 신의 고을을 이뤘다는 것은 무교의식으로 취임식을 거행한 것이므로 단군 탄생 이전에 이미 무교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국조신화에서 나타난 동굴모티프는 웅녀가 곰족녀였으므로 지상족으로는 강한 족속이었다고 추정된다. 환웅은 천신족이고 단군은 그의 후예이며 웅녀는 곰족녀였으므로 입사식과 같은 통과의례가 있은 후에 결혼이 성립된 것이다. 나라굿에는 환웅과 웅녀의 관계가 통정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것은 관객이 관람할 때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에 그 의도가 있었다. 웅녀가 지모신으로 변신한 후 아이 낳기를 소원하므로 웅녀의 소원을 들어주어 단군을 낳은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곰이나 곰족녀가 웅녀로 다시 지모신으로 변신한 것은 신분상승의 의미가 주어지는데 곰은 짐승이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곰족녀도 동굴생활을 하기 전에는 추모였다고 할 수 있다. 제의적 죽음을 경과한 후에 웅녀는 절세미인으로 변신해 환웅이 웅녀에게 가혼을 한 것이다.

동굴모티프는 후세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박씨전>에서 박씨는 입사식과 같은 고난을 겪은 후에 절세미인으로 변신한 것은 그 모티프의 수용이라고 본다.[39]

---

39) 김미란은 박씨가 변신을 하는 것은 입사식의 통과의례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또한 박씨의 야성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작품이 <박씨전>이라 한다. 박씨가 후원

<박씨전>에서 박씨는 천상에서 지은 업과로 인해 추모의 얼굴로 태어났다. 그리고 이시백에게 시집온 지 3년동안 남편과 시댁식구로부터 괄시를 받았으며 또한 피화당에서 격리된 채 별거생활을 한 것은 천당에서 지은 죄 때문이다. 피화당에서 시비 계화와 함께 격리된 생활을 한 것은 얼굴이 흉측했기 때문이며, 오직 시아버지만이 박씨를 극진히 위해 줄 뿐 남편은 물론 온 집안의 조롱과 천대의 대상이었다.

박씨는 3년에 걸친 수난을 겪은 후에 천상에서의 죄를 벗을 수가 있어 절세미인으로 변신한 후 남편과 금술이 좋아지고 일가는 화목하게 되었다. 박씨는 도술이 뛰어나 초인적인 혜안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우의정 이시백으로 하여금 국왕에게 방비책을 진언케 했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난이 발발케 되었다. 마침내 조정은 굴복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이에 호장 용울대는 장졸을 인솔하여 박씨가 거처하는 피화당에 침입했으나 이것을 도술로써 물리친 대공을 세운다. 박씨가 삼차에 걸친 싸움에서 승리하고 국왕으로부터 충렬부인으로 봉해진 것은 신분상승을 의미한다.40)

서사문학에서 적강화소는 대개 통과의례적인 입사식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으면 선업을 쌓는 결과에 따라 파송자로부터 통과인정을 받아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오거나 죽은 후에 승천하는 것으로 된다. 주인공이 비록 천상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선업에 대한 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심리학설에 의해서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알맞은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전소설의 주인공이 대부분 전생의 죄에 의해 현세로 적강되어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생활을 하게 된다. 적강소설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탄생해 그 주인공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고 동굴모티프와 같은 어두운 그늘에서 자라나게 된다.

적강이란 천상적 존재가 천상에서 지은 罪로 말미암아 지상으로 유배오는 것을 말한다. 적강모티프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대개 천상세계라고 하는 이원

에다 별당을 짓고 온갖 초목을 길렀다는 것은 너무도 확연한 태모시대의 성격이라 하였으며 또 그것을 오행에 맞추어 길렀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우주의 섭리에 부합된다고 하였으며 박씨의 야성은 박씨가 한끼에 밥을 서말씩 먹고 그리고 잠을 잔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40) 박씨전 외에 추모로 인한 탈각형에 해당하는 모티프는 수박형태의 둥근 모습에서 미남자로 변신한 <김원전>, 역시 둥근 방울 형태에서 미인이 되는 <금령전>, 천상에서의 죄로 인해 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선관의 도움으로 송아지의 허물을 벗고 미남자로 변신했다는 <금우태자전> 또 허물을 벗고 본령을 찾는다는 <형산백옥>도 있다. 이들은 천상에서의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입사식에서의 수난을 겪은 다음에 완인이 되기도 한다.

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대척적인 무한하고 유상한 천상세계라고 하는 이원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41]

<박씨전>도 적강모티프가 등장하는데 아버지 박처사가 인간세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42], 변신모티프 등으로 암시를 주고 있지만 변신 후 일가 친척과 재상 부인들의 모임에서 적강한 선녀라는 사실을 확실시한다.

이윽ᄒᆞ여 ᄇᆡᄇᆞᆫ이 낭ᄌᆞᄒᆞ드니, 술이 박씨의게 밋츠ᄆᆡ, 박씨 ᄌᆞᆫ을 잡아 진짓 치마의 기우리니 치ᄆᆡ 졋는지라. 즉시 시비를 명ᄒᆞ여 치마를 버셔주며 "불의 ᄉᆞ르라."ᄒᆞᆫ다, 시비 즉시 불의 너으니 다 타고 ᄌᆡ만 나맛는지라. 박씨 시비를 명하여, "ᄌᆡ를 털고 치마를 가져오라." ᄒᆞ며 입으니, 그 치마 빗치 젼보다 황홀ᄒᆞ여 더 고은지라. 좌중 부인들이 이 일을 보고 놀ᄂᆞ며 긔이히 역여 연고를 무른ᄃᆡ 씻지 못ᄒᆞ고 불노 씨스니, 이 비단은 불쥐는 터럭으로 ᄭᅳᆫ 비단이니 불쥐는 인간부인들이 ᄯᅩ 문왈, "입으신 져구리는 무ᄉᆞᆫ 비단이니잇가?" 박씨 답왈, " 이 비단일홈은 빙잠단이라. 우리 부친 이 용궁의 드러가 어더온 거시니, 물의 너어도 졋지 안코, 불의 너의도 타지 아니ᄒᆞ니, 이는 인간지죄 아니라 용녀의 슈품이라." ᄒᆞᆫᄃᆡ, 모단 부인들이 셔로 보며 칭찬ᄒᆞ며 신기이 여기더라. ᄯᅩᄒᆞᆫ 술이 박씨게 권ᄒᆞ니, 박씨 바도물 사양ᄒᆞᆫᄃᆡ, 모든 부인이 일향 권ᄒᆞ거늘, 박씨 바다 가지고 금봉ᄎᆞ를 ᄲᅦ여 들고 술ᄌᆞᆫ 가온ᄃᆡ를 ᄭᅳ으니, 술이 졀반식 갈ᄂᆞ지는지라. 박씨 ᄒᆞᆫ편만 마시고 노으니, 모다 보니 ᄒᆞᆫ편은 칼노 베인 닷시 잇거늘, 모든 부인이 보고 그 신긔ᄒᆞ물 흠앙경복ᄒᆞ여 종일 질기더니, ᄒᆞᆫ거름 치쳐 셕양이 ᄇᆡᆨ말 궁글치고 잘ᄉᆡ는 슈풀을 향ᄒᆞ고 동녕의 달 돗는다. 모든 부인이 노름을 파ᄒᆞ고 각각 도라가니라.

이러한 적강모티프는 박씨의 변신 후 아름다운 미모와 함께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변신이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완전한 상태를 꿈꾸는데 현실에서의 이와 같은 꿈은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43] 후자의 경우 현실세계가 아닌 이상세계로 전향되어 욕망은 충족되기 마련이다. 즉 비현실적인 세계에서의 꿈은 현실세계에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정신적으로 안정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문학작품에서 변신은 이와

41) 최규수, 「적강모티프 유배가사작품에 나타난 표현방식의 특성과 시적효과」, 『이화어문논집』1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4.

42) 이시백이 박처사를 찾으러 금강산으로 들어갔을 때, 초목을 하는 남자가 박처사는 몇 백년전의 사람이라는 것, 또한 홀연히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이곳저곳에 인간세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

43) 김민영, 「고소설에 수용된 변신화소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1.

같은 기능을 한다. 변신은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상태를 말하지만 작품 속에서 종종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상황을 전환시키고 흥미를 일으킨다. 즉 변신이 일어남으로 인해 주변상황이 변화됨은 물론이고 주인공의 전후 사정까지도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변신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그 영역을 넓히게 된다.

변신은 몸의 모양을 바꿈, 혹은 바뀐 몸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최근 변신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최근 변신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변신에 대한 개념 확대는 사람들의 관심에 비례한다.

변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상일은 처음으로 변신에 대해 정의를 내렸는데, 자의나 타의에 의해 어떤 원형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 했다. 이어 장덕순은 변신을 생시든 죽어서든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라 하여 생과 죽음의 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변신의 형태를 구체화시켰고, 정상진은 변신을 변신주체자의 형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력이나 타력에 의해 변화하는 신체변화라 했다. 김귀석 역시 외형적인 변화만을 변신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조희웅도 어떤 사물로부터 다른 사물로의 형태변화가 생기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변신의 대상으로 확대했다. 강진옥도 이와 같은 입장으로 인간계와 비인간계의 관계 아래 이루어지는 외형적인 변모를 변신이라 정의했다. 이는 모두 변신을 신체적인 변화에 한정하여 정의한 것이다. 다만 변신대상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외에도 변신의 개념 규정은 설화의 유형분류나 변신화소가 나타난 작품을 연구하는데 있어 자주 언급되는데, 대체로 정신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인 것의 변화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김미란의 경우 「고대소설과 변신」에서 밝히고 있듯이 변신을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정신적인 변화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 급격히 내면적 변화를 거치는 것을 말하는데, 윤리적인 변화와 종교적인 변화가 이에 속한다.

변신의 하위개념으로는 둔갑, 재생, 탈신, 착주, 화석으로 구분된다.[44] 이 가운데서 둔갑이란 본체가 자신의 의지로써 형체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떤 형태든지 변신이 가능하며 능동적이고 종래에 가서는 다시 본체로

---

44) 박신호, 「불교 변신설화 연구」, 『전통문화연구』4,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6, p.124.

회귀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재생은 본체가 일단 죽었다가 모습을 바꾸어 다시 소생하는 변신을 말한다. 이 때 재생의 수단으로는 부활과 같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신은 상대적으로 추악하고 미천한 상태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탈바꿈하는 상승적 변신을 말한다. 착추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술이나 주물에 의하여 형체가 바뀌는 타의적 변신이며 대체로 부정적인 변신에 해당된다. 화석은 본체가 돌이나 바위와 같은 광물로 굳어져 버리는 변신으로서 죽음과 결부되며 외형은 본체와 흡사한 경우가 많다.

<박씨전>에서는 둔갑술이 행해지지만 이는 아버지 박처사의 허락 하에 변신이 행해지며 다시 본체로 회귀하지는 않는다.45)

이 작품에서 박씨의 용모가 추하다는 것은 탈갑-변신하기까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고전문학 작품에서 주인공의 외모가 추녀로 설정된 예는 더더욱 흔치 않다.46)

①상공이 신부를 다리고 길을 써나 날이 져믈ᄆᆡ 직졈의 실낭. 신부를 다리고 한 방의 드러가니, 신부 무릅씨를 벗고 안질셰, 그 용모를 보니 형용 흉측ᄒᆞ여 보기를 염네론지라. 얼기는 고석갓고 불근 즁에, 입과 코와한데 닷고,눈은 달핑이 구멍 갓고 치불거지고, 입은 크기가 두 쥬먹을 너허도 오히려 넉넉ᄒᆞ며, 이마는 메뚜기 이마 갓고, 머리털을 ᄊᆞ르고 심히 부하니, 그 형용이 ᄎᆞ마 보지 못헐네라.

②비록 칠규ᄂᆞᆫ 잇시나 얼골이 사름갓지 아니 ᄒᆞ야 한낫 육괴라.....초옥이 이십오세되니 더욱 긔괴ᄒᆞ야 아무 말도 못ᄒᆞ고 (<형산백옥>,550쪽)

③그 용모를 말한진대, 두 볼은 한자가 넘고 눈은 퉁방울같고 코는 질병같고 메기같고 머리털은 돼지털같고 키는 장승만하고 소리는 이리소리같고 허리는 두 아름이나 되는 것이 게다가 곰배팔이요 수종다리에 언청이를 겸하였고 그 주둥이를 썰어내면 열 사발은 되겠고 얽기는 콩멍석같으니, 그 생김새는 바로 보기가 어려운 중에...(<장화홍련전>,122쪽)

---

45) 박씨는 추한 허물을 벗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궤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방울전>의 금방울과 다른 점이다. 금방울은 변신-결혼과 함께 자신의 야성을 완전히 포기한데 반해 박씨는 그 야성을 내면에 간직하였다가 결혼한 이후에도 필요한 때 그것을 발휘하였다.

46) 고전문학에서 추녀 주인공이 등장하는 예는 <형산백옥>의 초옥, <꼭독가시전>의 꼭씨녀, 가사집에 전하는 <노처녀가>의 노처녀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인용문 ①과 ②는 주인공이 추녀로 설정된 작품으로 <박씨전>의 박씨의 용모와 <형산백옥>의 초옥의 용모를 묘사한 부분이다. 그리고 인용문 ③은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의 용모이다. 악인의 표상인 허씨는 고소설에서 인물 형상의 정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박씨의 형상과는 구별된다. 박씨는 고소설에서 여주인공이 선인이나 제자가인으로 설정된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 여기에서 ①과 ②의 추한 모습은 외모에 한정되어 있음에 비해 ③의 추한 모습은 계모 허씨가 추한 용모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악처로서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즉 <박씨전>의 박씨와 <형산백옥>의 초옥의 추모는 당대 소설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외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47]

그렇다면 당대 사회에서 외모의 인식을 위해 일반 고소설의 여주인공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

①그 계집이 향물의 이긔를 싯쳐 부인것ᄐᆡ 뉘이고 밧그로 나가거날 (중략) 쓧 갓탄 얼골이 비범ᄒᆞ고 말근 향ᄂᆡ 방안의 진동ᄒᆞ거날 긤젼 부쳐 크게 짓거 이긔 일흠을 슉향이라 ᄒᆞ고 ᄌᆞ난 월궁션이라 ᄒᆞ다.(<숙향전>)

②낭ᄌᆞ의 화용은 운간명월이 벽공에 걸엿ᄂᆞᆫ 듯 ᄐᆡ도ᄂᆞᆫ 금본모란이 흡연이 조로를 씌엿ᄂᆞᆫ듯ᄒᆞ고 일쌍츄파ᄂᆞᆫ 정슈ᄀᆞᆺ고 섬섬세료ᄂᆞᆫ 츈풍에 양류 휘드는는 듯 쳡쳡쥬슌은 잉뮈단ᄉᆞ를 먹으믄듯ᄒᆞ니 쳔고무쌍이오 ᄎᆞ세에 독보홀졀ᄃᆡ가인이라 (<숙영낭자전>)

위의 예문은 각각 <숙향전>의 숙향, <숙영낭자전>의 숙영 등의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다. 두 작품의 여자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즉 여주인공들의 외모는 초월적 환상성으로 만들어진 여인상이며, 이러한 경향은 당대 일반적인 여인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사회의 여성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미인이 곧 선인'이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씨전>의 주인공을 추녀로 설정한 것은 다른 고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부정적인 선입견을 반영하려는 의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인공에게 이미 예견된 시련의 증거물인 셈이다. 이는 <박씨전>에서 박처사가 박씨에게 "네 이제ᄂᆞᆫ 익운이 진ᄒᆞ엿시니 허물을 곳치라"고 말하는 장

47) 여정숙, 「<박씨전>에 나타난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성과 그 의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면에서도 알 수 있다.

탈갑-변신으로 획득한 미모는 의외성이나 모험심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에게 경이로움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고도의 환상성이 작용한다. 변신은 현실적 차원의 인식을 넘어서 신비적·이상적 세계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소설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때 미모는 '추모'와는 달리 현실을 뛰어넘은 세계를 통한 흥분된 감동의 정서이다. 즉 미모는 감성에 호소하는 소설적 장치인 탈갑-변신에 의해 경이로운 정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적 장치 속에 환상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혼사가 장애없이 진행된 후, 박씨부인에게 닥친 시련과 숨겨진 비범성의 발현으로 시련을 극복한다. 시련의 원인은 박색과 추모이고 시련의 양상은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의 박대이다.

> **이ᄯᅢ 시ᄇᆡ이 박씨의 츄비ᄒᆞᆫ 인물을 보고 일졍 미워도 ᄒᆞ며 ᄃᆡ면을 아니ᄒᆞ니 비복도 ᄯᅩᄒᆞᆫ 갓치 미워ᄒᆞᄂᆞᆫ지라.... ᄂᆡ당에 드러가본듸 부친의 훈계 허ᄉᆞ요 박씨를 미운마음이 젼보담 더ᄒᆞᆫ지라 등잔 위에 붓ᄎᆡ ᄎᆡ면 ᄒᆞ고 밤을 지ᄂᆡ더니....이ᄯᅴ 부인이 박씨를 졀통이 여기여서.... 가운이 불ᄒᆡᆼᄒᆞ야 허다ᄒᆞᆫ ᄉᆞᄅᆞᆷ즁에 져런 거슬 며나리라ᄒᆞ고 ᄉᆡᆼ겨쓰나 쓸데없ᄂᆞᆫ 즁에 게을러만 ᄌᆞ고 여공 ᄌᆡ질은 못ᄒᆞᄂᆞᆫ거시 밥을 포식ᄒᆞ랴ᄒᆞ니 어ᄃᆡ다 쓰잔말가....**

여성수난을 내포한 작품에서 보이는 시련의 원인은 혼사장애, 외적의 침입 또는 부모나 가문의 몰락에서 빚어진 악운에 의한 것으로 인용한 내용에서 본 박씨부인의 시련과는 차이가 보인다. 초모의 운명은 생래적으로 소지한 것이지 외적 요소의 영향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다. 여성수난 소설에서의 주인공은 불행을 타고나지는 않는다. 외부의 힘에 의해 시련을 겪는 반면 박씨부인의 추모는 스스로 지닌 천정의 운수로 나타난다. 당대의 정치적 갈등이나 외적의 침입으로 부가되는 영웅의 시련은 역사상의 산물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박씨의 전생에 지은 죄의 댓가로 醜貌로 태어나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통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3년 동안을 피화당에서 정신적,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지낸다. 그동안 가족들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근본적인 화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시적이며 시한적인 갈등해소책으로 머물고 만다. 이러한 작품 구성은 물론 이후의 변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독자들에게는 박씨부인의 비범성과 신이성을 단계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화소들임은 물론이고 진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흥미소이기도 하다.48)

박씨의 추한 모습은 그 비현실성 때문에 구제의 필연성을 수반하게 되고, 이 구원은 정해진 기한의 만료에 의해 이루어지며 결국 구원의 방법으로 변신이란 모티브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박씨는 박처사의 도움으로 본래의 모습인 月宮姮娥같은 미모를 되찾아 가족들간의 갈등을 불식시키고 남편 이시백의 사랑을 되찾게 된다.

일일은 처새 드러가 녀아를 보고 조용히 일너 왈 네 액운이 다 잔하얏스니 누츄한 허물을 버스라 하고 탈갑 변화 지술을 가르쳐

누추한 허물을 벗어 전생의 죄를 지은 박씨는 사라지고 새로운 박씨로의 탄생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완전한 여성으로 재생한 것이며 평온과 화목을 이룰 수 있었으며 좋은 아내, 며느리로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시집살이 3년동안 남편에게 소박맞고 별거해야 했던 婦德, 시댁 가족의 학대와 수모로부터 초연하게 견뎌낸 인고와 미덕은 득죄의 댓가였다. 3년의 시간이 지나 박씨가 전생에 지은 죄의 댓가는 끝나게 되고, 시백의 과거급제로 인해 박씨는 추모로 남을 이유도 없거니와 가족의 냉대도 받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

본래적 의도(죄의 댓가)가 해소되었기에 박씨의 탈갑 변신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박씨는 변신하기까지, 홀로 피화당에 묻혀 갇혀지내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련기를 보내야 했다. 이는 금강산 깊은 深谷에 묻혀 있던 한 소녀가 성장하여 성숙한 여인이 되어 시댁-당시의 소녀가 소속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소사회-으로 들어갈 때 그 사회의 인정을 받아 당당한 한 구성원이 되기까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入社式 혹은 通過祭儀라 할 수 있다. 박씨의 변신은 성년식의 의미와 함께 입사식의 의미를 가진다. 박씨가 피화당에 혼자 살면서 새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조복을 하룻밤에 지어낸 일, 비루먹은 말을 잘 먹여 비싼 값에 팔아 가정경제에 도움을 준 일, 과거를 보러 가는 남편에게 백옥연적을 주는 일 등 일련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박씨전의 박씨는 변신한 후 즉 시험기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완숙한 한 여성으로 명실상부한 아내이며 며느리로서 받아들여졌다.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고난 극복의 의지가 좌절되지

48) 홍영희, 「<박씨전>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않고 선업으로 이어지는 징벌에 대한 구원이라는 주제 외에도, 여성의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강한 주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여성 우위성의 확보로 여성의 열등감에 의해 심리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보상의 대가에는 변신 모티프가 작용하게 되는데, 변신 후에 여성의 지위는 두드러지게 향상된다.

<박씨전>에서 평범한 남편인 이시백과 초능력을 지닌 박씨부인의 관계는 조선 여인들의 심리를 무엇보다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다. 박씨는 여성으로서 소위 덕과 교양은 갖추었으나 미모를 갖추지 못한 모습은 많은 여성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잘 표현해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신은 뭇 여성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었으며, 더구나 여성이 남성들이 해내지 못한 국난극복을 해냈다는 데 자부심을 갖게 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한다. 더구나 남성들은 여성들의 내조가 큰 역할을 함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열등감을 씻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여성에 대해서 언급한 많은 글에서는 주로 조선시대 여성들이 삼종지의와 칠거지악이라는 법에 의하여 항상 억압된 생활을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한많은 일생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규방에 갇힌 꽃이라든가 눈물과 시름속에 보낸 일생이라는 등의 표현을 하고 있다. 사실 조선시대의 많은 문헌들이나 그 당시의 작품에는 여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묘사되어 있고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암흑과 같은 시기로 간주되고 있다. 49)

이러한 주장은 조선시대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현상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좀 더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많은 역사적인 기록이나 학자들의 저서에서 그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주장했던 여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회에서 어떠한 강압정책을 쓴다 해도 인간사회라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며 당시의 규범이나 법에 어긋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벌이는 사건이 끊임이 없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 역시 표면적으로는 삼강오륜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행동규범이 있었지만 당시의 양반들이 수없이 많은 非理를 저질렀다는 것은 당시의 기록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가 표방하는 규범과 실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49) 김미란, 「고대소설에 나타난 여성변신의 의미」, 『문호』8, 건국대학교, 1983.

이렇게 본다면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역시 그들이 따라야 하는 윤리규범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한 예도 많았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라도 되듯이 조선시대 초부터 세종 9년 말까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것 중에 烈婦에 대한 기록이 22건인대 반해 失節女에 대한 기록은 25건에 달한다. 세종은 이에 대하여 부녀들의 교화를 위해서 三綱行實圖등의 교육서의 편찬을 명하고 또한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 부녀자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 절에 가거나 점등하는 것을 금하고 친척 남자와 만나는 것을 금지했으며 외출할 때에는 꼭 얼굴을 가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는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아 끊이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절한 부인들의 기사도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실록 뿐만이 아니라 야담집에도 많이 등장한다. 성현이 지은 용재총화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기사와 함께 남녀간의 애증이 얽힌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패륜이라든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등의 주관적인 말이 없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다루었다. 사대부집 부인이 이웃 남자와 닥나무 밭에 들어갔다가 비녀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양반집 과부가 중과 밀통하는 이야기, 또는 관의 기생이 자기가 겪은 전임사또들의 점수를 매기는 이야기 등 그들이 치부로 느껴 말하기를 꺼렸을 만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용재는 그러한 기사의 주인공을 모두 기록해 놓음으로써 사실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는 오히려 당시의 적나라한 사회 분위기였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조선시대 여성사회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이 양면성이란 하나는 주자학에 충실한 여성의 윤리규범을 삶의 목표로 삼고 이에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면과 또 하나는 솔직한 감정과 애욕에 그대로 따름으로서 형성되는 면이다. 다시 말하면 이상과 현실의 이중성이다. 그리고 이상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대로, 또 본성의 욕구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어떤 열등감을 느끼게 마련이었다. 왜냐하면 주자학에서 가르치는 여성의 행동규범은 결코 여성들의 본성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명분에 충실한 여성들은 현실에서 오는 고통과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억압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감수해야 했고, 또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사회의 그러한 가치관에 의하면 자신들이 정당치 못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죄의식과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의식은 사회적인 변동이 없는 동안에는 별로 표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임·병란이 일어나고 사회에 급격한 변동이 생겨 조선백성들에게 큰 의식의 변화가 왔을 때 여성들의 정신세계에도 큰 변화가 왔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전쟁에서 오는 여성들의 피해가 참혹했던 만큼 그들이 겪어야 했던 내적, 외적인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을 겪은 후 시대를 따라 내려 오면서 행해지는 전쟁의 원인 규명과 피해에 대한 복구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등 일련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느끼는 바가 자못 절실하였을 것이다. 위정자들의 실정과 식견없음을 한탄하고 그러다 보니 남성들의 무능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강도몽류록을 보면 적멸사에 있는 청허선사가 어느날 밤 여러 부인들의 곡성을 듣고 가 보니 여러 부인들이 둘러앉아 이야기 하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 전쟁 때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씩 자기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묻고 거기에는 자기의 남편과 시부의 책임도 크다고 원망하고 있다. 결국 전쟁을 되돌이켜 보며 여성들은 남성들의 무능함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여성들이 느꼈던 열등감은 자신들의 능력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으며 또한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었다. 재주있는 여성들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있더라도 사회적인 편견에 의하여 그것을 펴 보지 못하였다.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이며 각자가 지닌 재주는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누구나 여공에만 힘을 기울여야 했고 그것이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여자의 일생이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시집가서 부덕과 여공으로 시부모의 인정을 받고 또 그럼으로써만 남편과의 화합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의 지위는 탄탄해진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이었다. 유한당씨언행록이란 작품에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가장 이상적인 생활이 묘사되어 있다. 구운몽의 양소유가 조선 남성들의 이상형이라면 유한당은 조선 여성들의 이상형이었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 유한당 사씨를 통하여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유한당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여자행실록이란 작품에는 호강하고 자란 김씨부인이 당장 먹을 쌀도 없는 집에 시집가서 어떻게 그 난국을 헤쳐 나갔나 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그것은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이룩한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글 읽는 일 밖에 몰랐고 시부

모 또한 무관심하였다. 여자 혼자 치마끈을 졸라매고 고통을 감수하며 해 냈던 일이다. 그러나 결코 이것을 내세워서는 안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남편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했으며 어떤 대우도 달게 받아야 한다. 그것은 내 몸이 그 손에 달렸기 때문이라고 김대비훈민전의 작가는 가르치고 있다.

이상에 따르고자 하는 여성이나 그렇지 못한 여성이나 다같이 느낄 수 밖에 없던 남성과의 갈등과 그들에 대한 열등감은 결국 상상 속에서 여성의 우위를 꿈꾸며 해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그때까지 전해지던 설화 중에서 여성의 우위를 주제로 하는 이야기를 사회적인 배경과 연결시켜 구성한 작품들이 창작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박씨전>에서는 여주인공 박씨가 추모에서 미모로 변신하여 미녀 우위를 강조하며 여성의 열등감을 극복한다.[50]

평범한 남성인 시백과 초능력을 지닌 박씨의 관계는 조선 여성들의 심리를 무엇보다도 잘 나타내는 것이다. 부덕은 갖추었으나 미모가 없는 박씨의 모습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열등감을 그대로 형상화 해 놓은 것이다. 윤리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미덕과 인간이기 때문에 향하게 되는 미모에의 욕구 사이의 갈등은 인간 심리의 가장 적나라한 면을 말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결국 이성과 감정 사이의 갈등으로서 조선시대 작가나 독자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진지한 자세로 그러한 갈등을 추적하지 못했을 뿐이다. 박씨의 미모로의 변신은 이러한 갈등을 일시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던 여성 독자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었다.

박씨는 시집에 산지 삼년 만에 금강산에 다녀옴을 청한다. 子婦의 재주를 아는 媤부는 승낙하였고, 금강산에 다녀온지 얼마 후에 박처사가 와서 박씨에게 변신할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며 탈갑 변화 지술을 가르치니 박씨가 그날 밤 목욕 재계한 후 허물을 벗고 변신하게 된다. 그리고 영문을 묻는 시부에게 자신의 액운이 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 허물을 간직한다.

변신에 대한 동경은 여성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꿈의 표출이 바로 박씨의 미모로의 변신인 것이다. 박씨의 추모는 여성들의 열등감을 집약시켜 놓은 것으로 추모에서 미모로의 변신은 극심한 남녀차별과 제도에 얽매인 여성 독자들에게 우위적 위치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무한한 정신적 자유를 부여했으리라 생각된다.[51]

---

50) 홍영희 , 「<박씨전>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51) <박씨전>과 같은 여성 우위성의 변신모티프는 <금령전>에서도 나타난다. <금령전>의 주

박씨전에서는 여성 독자를 의식하여 여성의 활동과 우위라는 심리적 보상을 해주어 그들의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켜 주며 시대적 요구에 의해 청군에 대한 적개심과 그들에 대한 정신적 승리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박씨는 변신을 통해 청군을 무찌르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씨의 변신은 전체적으로 볼 때 발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신을 기점으로 하여 전에 보여 주었던 비범성과는 비교도 안되는 초인적인 힘을 변신한 후에 보여 준다. 변신 전에는 약간의 비범성만 보이고 초인적인 힘은 변신한 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발휘한다. 변신하기 전의 기간은 이러한 초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되었던 것이다.

2. 환상공간으로서의 피화당

<박씨전>에서는 초현실 공간으로 박처사가 거처한 금강산 외에도 피화당-박씨부인이 금강산을 다녀온 후 본격적인 도술을 발휘하는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 즉 현실공간인 이시백의 집 속에 초현실 공간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고소설의 일반화된 이시백의 집 속에 초현실 공간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고소설의 일반화된 초월세계의 공간과는 다른 관념적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피화당에서 행해지는 도술이 실제 발생했던 병자호란 체험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이고 실행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씨부인은 변신하기 전까지 3년이란 기간을 피화당에서 외롭게 지내지만 이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여러 가지 신기한 재주를 발휘하면서 자기가 인정받을 때를 기다리며 지낸다. 이 3년 동안의 기간은 박씨부인에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으며, 병자호란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으니 박씨부인에게는 오히려 필요한 시간이었다. 박씨부인에게는 공간적 격리와 정신적 격리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2]

혼인직후부터 시백은 박씨를 노골적으로 괄시하고 핍박한다.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만큼 박씨는 대범하지 않다. 스스로 피화당을 지어달라고

인공 금방울은 천상에서의 죄로 인해 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나 그 죄를 씻기 위해 16년동안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간생활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금방울은 장래 남편이 될 권해룡을 여러 가지 초인적인 행동을 감행해 해룡으로 하여금 출세토록 해준다.

52) 장인숙, 「환타지성을 통해 본 <박씨전>의 주제의식」,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하여 그 안에 은거하고자 할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였다.[53]

박복ᄒᆞ온 인물이 얼골과 모양이 추비ᄒᆞ와 부모게 효셩도 못ᄒᆞ옵고 부부간 화락도 못ᄒᆞ옵고 가졍의 화락지 못ᄒᆞ오니 가위 무용지물이라. 자식으로 아르시면 후원에 쵸당 ᄉᆞᆷ간만 지어 주시면 소회에 조을 듯ᄒᆞ오이다.

박씨는 자신의 역할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 화락하여 가정이 화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되고 있는 원인은 바로 박씨의 추모 때문이다. 박씨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피화당에 은거하는 것을 택하였다. 피화당에 은거하는 것은 박씨가 자신의 고난을 외면하거나 도망쳤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시백과의 감정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가정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다. 박씨의 외모만을 보고 괄시하는 시백의 행동은 분명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박씨가 자신의 추모로 인한 시백의 괄시는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며, 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백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탓하거나 반발하기 보다는 담담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후 박씨의 가정생활은 피화당에서 모두 이루어지므로, 피화당은 여성의 가정내 독립된 공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한 후에야,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힘을 낼 수 있다. 박씨는 피화당에 은거한 후에야 조복을 짓고 말을 사고 팔며 연적을 얻는 등의 활약을 하여 가정내 일원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확보해간다.

박씨는 피화당에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나무를 심고 가꾼다. 이 나무는 '용과 범이 화하여 바람과 비를 이루려 하고', '나무 가지는 무수한 새와 뱀이 首尾를 접응한' 듯하여 변화 무궁하다.

후원 협실의 ᄉᆞ방으로 나무를 시무되, 동방의는 청토요, 남방의는 적토요, 셔방의는 ᄇᆡᆨ토요, 북방의는 흑토요, 즁앙의는 황토요, 나무나무 복도도와 쌔쌔로 물을 쥬어 무ᄉᆞᆷ 형용갓치 기르더니, 그 나무 무셩ᄒᆞ엿는지라. ....그 나무가 사면의 버러 용과 범이 슈미를 응ᄒᆞ엿고 운무 ᄌᆞ욱ᄒᆞᆫ 듯ᄒᆞ며, 오ᄅᆡ 셔셔 이윽이 보니 그 가온ᄃᆡ 풍운조화 잇셔 변화무궁ᄒᆞᆫ지라.

---

53) 박효진, 「<박씨전>의 주제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26.

그런데 박씨의 영웅적 능력은 추악한 얼굴과 비정상적으로 큰 키와 긴 팔과 다리 등 '추비한 외모'속에 가려져 있다. 때문에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박씨의 영웅적 능력은 일상적 존재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더욱이 박씨의 탁월한 능력은 후원의 협실, 즉 폐쇄된 공간 '피화당' 속에 숨겨져 있다.[54]

박씨부인은 자신만의 공간인 피화당을 자신의 방식으로 가꾸어 간다. 시아버지 이득춘 또한 미메시스 인물이기 때문에 박씨부인이 장차 어떤 일을 대비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환타지 공간인 피화당에서는 시아버지도 주체에서 타자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피화당은 박씨부인이 거처를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 시아버지에게 불행한 때를 만나면 화를 피할 것이라며 피화당의 의미를 설명한다. 박씨부인은 피화당이라는 당호를 통해 남편에게 천대받는 화를 피해 후원으로 도피했음을 시아버지에게 노출하는 것이다.

전반부에서의 '피화'는 추한 외모로 고초를 겪는 여성이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편안함을 얻는 것으로, 피화당은 현실에서 배척받고 고통당하는 환타지 인물이 주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이후로 박씨부인은 환타지 공간으로 칩거한 이후 초월적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이덕춘이 갑자기 벼슬에 올라 하룻밤 내에 새 조복을 지어야 되었다. 하루만에 옷을 지어낸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불가능한 일이다.[55] 그러나 박씨는 단 하룻밤만에 조복을 지어낸다. 옷을 짓는 것은 여성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며, 하룻밤 새 조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박씨만이 가진 능력이다. 피화당에 은거해있던 박씨는 조복을 짓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입증하고,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게 된다.

박씨가 내일 이덕춘이 입고 갈 조복을 지을 감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가족 모두는 박씨를 믿지 못하여 일을 맡기지 않으려 했다.

공에 부인이 ᄃᆡ쇼왈, 제가 모양이 그러ᄒᆞ고 무ᄉᆞᆷ ᄌᆡ조가 잇스리오. 여러 ᄉᆞ름들도 ᄯᅩᄒᆞᆫ 말ᄒᆞᄃᆡ 옷감만 바릴 거시니 드려 보ᄂᆡ지 말미 올타 ᄒᆞ고

54) 윤분희, 「<박씨전>의 여성 영웅성 연구 」, 『한국민족문화』18, 익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2, p.45.

55) 박효진, 앞의 논문, p.28.

옷을 짓는 능력은 여성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박씨의 추모만을 보고 박씨의 능력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므로 능력 또한 뛰어날리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들은 박씨가 여성으로서의 기본조차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박씨는 가족들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옷을 단 하룻밤 내에 지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 뿐만 아니라 옷에 수까지 놓아 훌륭한 조복을 만들어내었다. 수 놓는 것 역시 양반가문의 여성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추한 외모와는 달리 박씨가 이상적인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박씨가 없었다면 이덕춘은 벼슬에 올라 임금을 뵙는 중요한 자리에서 새로운 조복을 입지 못했을 것이므로, 가정 내의 어려움을 수월히 해결한 박씨는 가정에 꼭 필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한다.

박씨는 조복 짓는 능력을 발휘해 자신의 존재를 임금에게 알리기도 한다. 박씨가 지은 조복을 입고 이덕춘이 등청하였을 때, 임금은 박씨가 옷에 놓은 수를 보고 박씨가 가족들에게서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읽어낸다.

>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경의 조복을 보니 후의 붓친 청학은 션경을 써나 창히중으로 왕ᄂᆡ하야 주리ᄂᆞᆫ 형상이요, 압헤 붓친 봉황은 ᄯᅡᆨ을 일코 우ᄂᆞᆫ 형상이 분명ᄒᆞ니 그를 보고 짐작하노라. 아지못게라. 경의 며ᄂᆞ리가 비록 ᄋᆞ름답지 못ᄒᆞ나 영웅의 풍치로다. 박ᄃᆡ치 말나.**

박씨는 자기가 지은 조복을 통해 배고프고 외로운 자신의 심정을 임금에게 호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였다. 임금의 말을 빌려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전하는 것은 임금의 권위를 빌리게 되므로 대단히 효과적이다. 가족들은 박씨의 말을 직접 듣는 것보다는 임금의 말을 전해 들음으로써 박씨의 말을 좀더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 실제로 이덕춘이 임금이 한 말을 전하며 박씨를 박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자, 그 후에 시백과 가인들이 박씨에게 박대함이 덜하게 되었다.

박씨가 조복을 지어 자신의 존재를 임금에게 알린 것은 이렇게 가족들과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자신이 이시백 가문의 일원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때 박씨가 가문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공인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임금은 박씨를 본 적이 없지만, 박씨가 지은 조복만을 보고도 영웅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본다. 박씨는 조복짓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식적으로 가문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고 가정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조복 이야기에서 박씨는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이다. 만약 이덕춘이 박씨에게 조복을 짓도록 하지 않았다면 박씨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 그러므로 조복 이야기는 가족들이 박씨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말 이야기는 박씨에게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박씨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장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이덕춘에게 '집안이 구ᄎᆞ튼 아니ᄒᆞ오나 오히려 유여튼 못ᄒᆞ오니' 말을 사다 달라고 청하고 있다.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지만 가정내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박씨가 가정에 어느정도 적응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박씨는 작고 비루하여 모양 볼 것 없는 말을 사다달라고 하는데, 이는 좋은 말을 두고 굳이 좋지 않은 말을 사오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기존 설화의 화소가 차용되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박씨왈, 명일 종노에 ᄉᆞ환을 보ᄂᆡ시면 각처 ᄉᆞ람들이 말을 팔녀 ᄒᆞ고 모얏슬 거시니 여러 말 중에 져근 말 ᄒᆞ나히 잇슬 거시니 비루먹고 파리ᄒᆞ여 모양은 몰거시 업스나 돈 숨ᄇᆡᆨ냥만 근실ᄒᆞᆫ 노복을 주어 ᄉᆞ오라 ᄒᆞ옵소셔.

온달설화에서도 평강공주가 일부러 왕실의 좋지 않은 말을 골라 사오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 <박씨전>에 바로 이 설화가 차용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며, 이렇게 사온 말을 여주인공들이 잘 키워낸다는 점이 일치한다. 다만 <박씨전>에는 말을 사고 되파는 과정에서 박씨의 치산 능력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효과적으로 추가되어 삽입되어 있다. 박씨는 이덕춘에게 특별히 근실한 하인을 보내어 말을 사올 것을 청했지만, 이덕춘이 보낸 하인들은 삼백냥이라는 큰 돈을 분부대로 충실하게 쓰지 않았다.

공이 즉시 ᄌᆞ부에게 말 ᄉᆞ온 말을 ᄒᆞ니 박씨 노복더러 가져오라 ᄒᆞ야 익히보다가 엿ᄌᆞ오ᄃᆡ, 이 말 갑시 숨ᄇᆡᆨ냥 줌가를 주어야 쓸대잇숩ᄂᆞᆫ대 무지ᄒᆞᆫ 노복이 ᄇᆡᆨ냥만 쥬옵고 이ᄇᆡᆨ냥은 은휘ᄒᆞ고 말 장ᄉᆞ를 쥬지 아니ᄒᆞ얍숩기로 쓸대업스니 '도로 갓다 쥬라' ᄒᆞ옵소셔.

하인들은 말 값이 과하여 돈을 받지 않으려는 말주인과 실랑이하다가 결국

말 값으로는 백 냥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은휘하였다. 평범한 주인이라면 하인의 말에 속았겠지만, 박씨는 삼백냥을 주고 말을 사왔다는 하인의 거짓말을 눈으로 본 듯이 정확히 알아내고 다시 말 값을 자신의 말대로 주고 올 것을 지시한다. 박씨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의 돈을 정직하게 지불하고, 부당한 이익을 보지 않으려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하게 치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온달설화에서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을 사서 길렀다. 그러나 박씨는 말을 자신에게 직접적인 쓰임새가 있는 동물로 본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하인들이 사온 말을 길러 수십배의 이익을 남기고 되파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박씨가 치산이 능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자신이 직접 가보지도 않은 종로에서 말을 팔고 있고 그 중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볼품없는 말이 바로 천리마이며, 이를 길러 팔면 수십배의 이익을 보리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양반가문의 여성이 이득을 보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적으로 사고파는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박씨의 가정경제가 궁핍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이득이 가정에 꼭 필요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박씨는 굳이 말을 사고파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치산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들보다 경제적 이득을 더 많이 보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밝아야 한다. 시기적절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 이득을 보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양반가문의 기혼여성은 나라의 녹을 받는 남성과는 달리 가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 박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치산하였고 이를 통해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 기여한 정도가 가정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더라도 치산하는 능력은 가족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씨에게서 치산에 능한 여성의 능력을 볼 수 있다. 말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박씨가 얻어낸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가정내에서 박씨의 능력을 발휘할 여지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어리석은 여성은 치산할 수 없다. 박씨는 치산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여 가정경제에 적절히 참여하였다.

박씨는 시백이 과거에 참여하기 전날 밤 신이한 꿈을 꾸고, 꿈에서와 같은 연적을 실제로 얻는다. 박씨는 시백에게 연적을 주고 시백은 연적의 물로 먹을 갈아 과거에 급제한다. 여기서 연적은 박씨와 시백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시백이 박씨를 박대하는 중에 가정불화가 계속

되었지만, 박씨와 시백이 직접적으로 충돌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제까지 박씨와 시백의 사이에는 항상 이덕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덕춘은 시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박씨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시백을 훈계해왔고, 박씨는 이덕춘의 보살핌 속에서 시백의 부당한 대우를 말없이 받아들여왔다. 그러나 시백의 과거를 앞두고, 박씨는 시백이 자신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시백을 청하여 연적을 건네주고자 한다.

계화를 명하야, 리싱씨 엿ᄌᆞ올 말숨이 잇ᄉᆞ오니 잠간 단여가옵소셔. ᄒᆞᆫᄃᆡ 시빅이 듯고 정색왈, 요망ᄒᆞᆫ 박씨 감히 나를 청ᄒᆞᄂᆞ뇨. 다시 계화를 명ᄒᆞ야 젼ᄀᆞᆯ왈, 잠간 드러오시면 드릴 거시 잇스니 ᄒᆞᆫ번 슈고를 앗기지 마르옵소셔. ᄒᆞ거늘, 시빅이 질로왈, 요망한 계화를 다ᄉᆞ려 요ᄆᆞᆼᄒᆞᆷ을 졔어ᄒᆞ리라. ᄒᆞ고 ᄌᆞᆸᄋᆞᄂᆡ여 크게 ᄭᆞ짖고 ᄉᆞᆷ십도를 중치ᄒᆞ야 물니치니,

이처럼 박씨가 시백에게 연적을 주고자 반복하여 청하는 과정에서 둘의 갈등은 깊어지고 시백은 급기야 계화를 매로 다스린다. 계화는 박씨의 분신과도 같으며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계화를 매질한 시백의 격렬한 행동은 박씨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시백이 자신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박씨가 연적을 주려는 것은 연적이 과거급제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시백이 자신을 거부함에도 박씨가 연적을 주려는 것은 연적이 시백의 과거급제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시백이 자신을 거부하더라도 박씨 자신만 참고 견디면 가문에 손해가 될 일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를 앞둔 지금 시백이 박씨의 청을 거부하는 것은 가문의 이름을 빛낼 기회를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백과의 깊어지는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박씨는 연적을 건네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한다.

이러한 박씨에게서 남편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혼인 이후부터 박씨는 남편을 일관되게 내조하고 있다. 시백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시백의 허물을 덮었고, 자신을 거부하는 시백에게 연적을 건네어 시백의 성취에 일조하고 있다.

슬퍼 탄식ᄒᆞ고 계화를 불너 연젹을 주어 왈, 이 연젹에 물노 먹을 가라 글을 지어 밧치면 장원급졔ᄒᆞᆯ 거시니 입신양명ᄒᆞ거든 부모젼에 영화를 뵈여 가문을 빗ᄂᆡᆫ 후에 날 갓흔 박명ᄒᆞᆫ ᄉᆞ름을 ᄉᆡᆼ각 말고 명문에 ᄋᆞ름다온 숙녀를 취ᄒᆞ야 ᄐᆡ평으로 히로동락ᄒᆞ소셔 ᄒᆞ라.

박씨는 계화를 매질한 시백의 처사를 슬퍼하고 명문의 아름다운 숙녀를 얻으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남편을 충실히 내조하려 하며 시백 역시 박씨를 박대하기는 하지만 박씨가 자신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려 함을 알게 된다. 연적을 받은 시백은 박씨를 애연히 여기고 계화를 매질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다.

나의 용렬ᄒᆞᆷ을 부인에 광할ᄒᆞᆷ으로 풀어바리시고 안심ᄒᆞ옵소셔. ᄐᆡ평동락ᄒᆞ옵기를 바ᄅᆞᄂᆞ이다.

연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박씨와 시백의 갈등이 깊어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박씨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또 결국 박씨의 내조를 받아들여 과거급제 하였으므로 박씨는 시백을 통해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박씨가 꿈을 꾸어 얻은 연적으로 시백이 과거 급제한 것은 박씨의 의지와 시백의 미래가 일치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시백의 과거 급제는 장차 가문의 흥망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일이다. 박씨는 남편을 성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여 시백의 과거급제에 중요한 영향을 줌으로써 시백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후반부에서 병자호란을 피하는 곳으로 피화당과 남한산성이 나타난다. 국란을 예견하지 못하고,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조정과 청나라에게 패배한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남한산성은 박씨부인이 도술로 실제 역사를 전복시키는 환타지 공간인 피화당과 남한산성이 나타난다. 국란을 예견하지 못하고,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조정과 청나라에게 패배한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남한산성은 박씨부인이 도술로 실제 역사를 전복시키는 환타지 공간이 피화당과 대립하여 나타나고 있다.

용골ᄃᆡ 장안을 웅거ᄒᆞ여 물ᄉᆡᆨ을 츄심ᄒᆞ니 장안이 물 ᄉᆞᆯᄅᆞᆺ ᄒᆞ니, ᄉᆞᆯ기를 도망ᄒᆞ여 죽는 ᄉᆞ람이 무슈하더라. 피화당의셔 피란ᄒᆞᆫ ᄉᆞᄅᆞᆷ들이 이 말을 듯고 도망코ᄌᆞ ᄒᆞ거늘, 박씨 왈, 이제 장안 ᄉᆞ면을 도젹이 다 직히엿고, 피란코져 헌들 어ᄃᆡ로 가리요. 이곳에 잇시면 피화헐 도리 잇스리니 염녀말나. ᄒᆞ드라, 잇ᄯᅥ 율ᄃᆡ ᄇᆡᆨ여 긔를 거ᄂᆞ려 우상의 집을 범ᄒᆞ여 인물을 슈탐ᄒᆞ드니, ᄂᆡ외 젹젹ᄒᆞ여 뷘 집 갓거늘, ᄎᆞᄎᆞ 슈탐ᄒᆞ여 후원의 드러가 ᄉᆞᆯ펴보니 왼갓 긔이헌 슈목이 좌우의 여러 무셩ᄒᆞ엿서늘, 율ᄃᆡ 고히 역여ᄌᆞ셔이 ᄉᆞᆯ펴보니 나무마다 용과 범이 슈미를 응ᄒᆞ여 가지마다

빅암과 짐싱이 되어 천지풍운을 일우며, 술긔 가득ᄒᆞ여 은은헌 고각소ᄅᆡ 들니는ᄃᆡ 그 가온ᄃᆡ 무슈헌 ᄉᆞ름이 피란ᄒᆞ엿거늘, 율ᄃᆡ 의긔양양ᄒᆞ여 피화당을 겁칙ᄒᆞ여 달녀드니, 불의예 하날이 어우우며 흑운이 ᄌᆞ옥ᄒᆞ고 뇌졍병녁이 진동ᄒᆞ며, 좌우 젼후의 버겻든 나무 일시의 변ᄒᆞ여 무슈헌 갑옷 입은 군ᄉᆡ 되어 졈졈 에워ᄊᆞ고, 가지와 입히 화ᄒᆞ여 긔치참검이 되어 상셜 갓트며, 함셩소ᄅᆡ 천지 진동ᄒᆞ는지라. 율ᄃᆡ ᄃᆡ경ᄒᆞ여 급히 ᄂᆡ다라 오랴 ᄒᆞ즉, 발셔 칼 갓튼 바회 논기는 쳔여 장이ᄂᆞᄒᆞ여 압플 가리와 겹겹이 둘너ᄉᆞ니 전혀 갈 길이 업는지라.

남한산성은 피화를 했으나 실제 역사에서는 패전을 한 장소이다. <박씨전>에서도 남한산성은 패전을 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 피화당은 역사적 사실을 전복하는 환타지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골ᄃᆡ 그러이 역여 군ᄉᆞ를 호령ᄒᆞ여, 그 나무를 다벼히라. ᄒᆞ니, 문득 밋친 바람이 이러ᄂᆞ며 운뷔 ᄌᆞ욱ᄒᆞ고, 나무마다 무셩ᄒᆞ여 무슈헌 장졸이 되어, 금고함셩은 천지 진동ᄒᆞ며 용과 범이며 거문 ᄉᆡ와 흰 빅암이 슈미를 상접ᄒᆞ여 풍운을 토ᄒᆞ고, 치창검이 별 갓트며, 난ᄃᆡ업는 신장이 갑쥬를 입고 솜쳑금을 드러 호병 엄술ᄒᆞ니, 뇌졍벽녁이 강ᄉᆞ이 문허지는 듯 ᄒᆞ니, 호진 장졸들이 천지를 분변치 못ᄒᆞ고 죽엄이 구ᄉᆞ 갓드라. 용골ᄃᆡ 황겁ᄒᆞ여 급히 징을 쳐서 군ᄉᆞ를 거두니, 이윽고 천지명낭헌지라. 용골ᄃᆡ 더둑 분긔 ᄃᆡ발ᄒᆞ여 칼을 들고 달려든즉, 명낭헌 천지의 도로 ᄌᆞ욱ᄒᆞ며 무슈헌 신병이 도로 엄술ᄒᆞ니, 호진 장졸이 감이 손을 용납지 못ᄒᆞ드니, 문득 나무 속으로셔 ᄒᆞᆫ 여인이 나와 크게 ᄭᆞ지져 왈, 무지헌 용골ᄃᆡ야, 네 ᄋᆞ오가 ᄂᆡ 손의 죽어거늘, 너조ᄎᆞ 죽기를 ᄌᆞ촉ᄒᆞ는다.

피화당은 집· 조정 · 남한산성과 대립을 이루며 환타지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반부에서 추한 얼굴로 나타난 박씨부인은 박대하는 남편과 주변인들에게서 도피하여 피화당을 꾸민다. 현실의 관점에서 피화당은 도피의 공간이지만, 박씨부인은 가족 구성원에게서 받는 화를 피하고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 이처럼 전반부의 피화당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과 대립된 세계를 표현하는 공간이 되지만 후반부의 피화당은 국란을 대비하고 청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즉 표면적으로는 유교의 가부장권 사회에서 피화당은 규방의 현실공간이면서, 도술공간인 초현실공간이다. 이런 고정화된 피화당에서 펼쳐지는 도술은 실제 전란체험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실천적·실행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56]

56) 장인숙, 「환타지성을 통해 본 <박씨전>의 주제의식」,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인물과 사건의 초월적 성격

3-1. 박처사의 이인적 성격

먼저 <박씨전>의 모티프를 사건이 일어나는 서사단락으로 나누어보겠다.

단락1. (1) 인조대왕 시절의 명문거족 이득춘과 부인 강씨의 기자정성
(2) 태몽-하늘의 태백성의 적강
(3) 이시백의 탄생과 성장
(4) 이득춘의 강원감사 도임

단락2. (5) 금강산 처사 박현옥과 부인 최씨의 장녀소개
(6) 청혼과 정혼
(7) 이득춘의 이조판서 세자빈객 제수
(8) 이시백과 박소저의 혼례
단락3. (9) 박색으로 인한 이시백과 강씨의 반대
(10) 피화정을 마련하여 거처함
(11) 千里駿驄을 사고 팜
(12) 이시백의 과거응시와 장원급제
단락4. (13) 박씨부인의 근친행
(14) 박처사 왕림
(15) 박씨부인 흉한 용모를 벗고 미녀로 변신
(16) 이시백과 박씨부인의 부부화합과 二子 탄생
(17) 이시백의 병판, 평안감사 제수
단락5. (18) 이시백이 명나라 上使로 제수됨
(19) 임경업 軍官으로 發程하여 가달을 물리침
(20) 호왕의 선심을 사고 환국
단락6. (21) 호국공주 선심을 사고 환국
(22) 호국공주 기룡대 조선에 밀입국
(23) 박씨부인의 신통술로 기룡대의 화를 막음
(24) 호국의 조선 침공
(25) 왕가의 피난과 김자점의 반대
(26) 충신, 열사, 왕대비전하의 피화정 피신

(27) 용홀대, 용골대 두 호국장수를 호통쳐 돌려보냄
(28) 화친과 볼모 수락
(29) 왕의 환궁과 공로 치하
단락7. (30) 임경업의 호국 發行
(31) 세자대군의 환국
(32) 김자점의 모해와 임경업의 죽음
단락8. (33) 이시백 일가의 번창과 부귀영화
(34) 이시백과 박씨부인의 죽음[57]

<박씨전>의 위 내용은 이야기의 성격에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로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데, 이시백이 병조판서가 되는 전반부는 추녀인 박씨가 미녀로 변신해서 화목하게 사는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박씨의 병자호란 때의 활약상으로 여기에는 임경업의 활약상[58]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락1은 장차 박씨부인의 배필이 될 남주인공 이시백의 출생담이다. 당대의 명문거족 이득춘과 부인 강씨의 기자정성과 하늘의 太白星이라는 前身을 밝힌 태몽에 이어 특출난 재주와 총명을 겸비한 男兒의 탄생이다.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출장입상할 기상과 호걸로서의 됨됨이 또한 영웅소설의 주인공의 출생담이 갖는 정석적 플롯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59]

반편 전편의 주인공인 박씨부인의 가계나 출생담에 따른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추악한 용모에도 불구하고 현숙하고 도학무량하다는 자질만이 언급된다. 소설적 영웅의 일생에서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고귀한 혈통의 후손으로 설정되지도 않았고 천상적 존재의 적강이라는 관습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박씨부인이 소지한 예견력과 신통술 등은 생래적인 것이지 습득된 것이 아닌 점 또한 그의 초인적 능력이 소설적 영웅과 다른 것을 나타낸다. 도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인물에 불과한 군담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박씨부인의 비범성은 동명왕과 같은 신화적 주인공이 지닌 생래적 자질과 가깝다고 보인다. 박씨부인의 출생담이 생략된 것도 신화적 영웅에게서 기자정성이나 태몽의 장면 대신 비범성의 발휘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과 관련

57) 신선희, 「<박씨전>의 作中人物考」, 『이화어문학회』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87.

58) 후반부는 <임경업전>과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이는 <박씨전>에 <임경업전>의 내용이 끼어든 것으로 또한 <박씨전>이 <임경업전>보다 후기의 작품이라는 것이 설명된다.

59) 군담소설의 정석적 플롯에 의하면 기자정성-태몽-출생까지의 과정은 이시백에 있어서 일치하나 시련-국가위기-주인공의 립공-정적의 복수-부귀영화에 해당되는 후반부는 박씨부인의 행적에 오히려 부합된다.

시켜 볼 때, 박씨부인의 영웅적 자질이나 특성이 소설적이라기 보다는 신화적 인물에 접근되어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단서가 된다.

구체적으로 박씨부인의 신분을 규명키 위해서 박처사의 신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금강산 처사'로 일컬어지며 도학이 유명한 선비로 금강산 유점사 근처에 비취정을 짓고 세월을 보내는 도학자로 설정된다. 세인의 존경을 받고 신명함이 있어 딸의 혼인도 그의 선견지명으로 결정을 하고 행보의 경첩함이 도인과 같아 간 곳을 모를 정도의 도술 능력까지 갖춘 인물이다. 仙風道骨에 布衣의 행장으로 심산유곡에 거처한다는 사실에서 쉽게 도인 또는 선인과 같이 박처사를 연결시킬 수 있다.

<장자>와 <산해경>에 실려있는 선인이 지닌 여러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후대 신선설화에 상투적으로 열거되는 전형적 묘사에 영향을 주었는데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는 列子, 養生에 도를 터득한 초월주의자들에 대한 묘사가 많다. 후대에 오면서 이들에 대한 허구적· 우화적 색채가 가셔지면서 신화적 단편들이 설화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점차 현실성을 띄게 되었다.60) 이와 같은 신선설화의 역사적 변천을 두고 박처사의 행적과 거처를 살펴보면, 그의 행적묘사에는 도인이나 선인의 비범함을 형용하는 상투적 어귀가 등장하고 거처하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得道의 과정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인세를 떠난 신선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으나 박처사는 지상적 인물로 부각되지 않는다. 그의 행적은 매우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 혼례를 위해 박처사를 찾아간 이득춘 부자는 금강산 중에서 만난 동자로부터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초동이 다시 답왈 제시단 말은 넷로인이 드르시기를 수복년 전에 이곳잇는 사름이 구목위소(構木爲巢)ᄒᆞ고 식목실(食木實)ᄒᆞ야 존호를 박처ᄉᆞ라 일으고 ᄉᆞ옵더니.... 게셔산지는 즘천즘복년이라 ᄒᆞ더이다.「』

나무를 얽어 집을 짓고 나무열매를 먹으며 생활하고 수백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그가 이미 지상적 의미의 인간이 아님을 시사해 주는 점이다. 葛市野服으로 죽장을 짚고 이득춘 부자를 맞이한 박처사가 거처하는 곳 또한 진세를 떠난 선경으로 묘사되어 있다. 박씨부인의 흉물의 탈을 진언을 읽어 절대가인으로 변신시킨 것도 바로 박처사이고 보면 박처사의 신분은 도인이나 선인의 경지에 이른 천상적 인물로 여겨진다.

---

60) 정재서, 『神仙說話의 歷史的 變遷』, pp.49~55.

다만 그의 거처지가 가상이나 전설의 지역이 아니고 금강산이라는 구체적 지명으로 언급된 것은 작품이 지닌 현실적 요소로 보여진다. 그를 보다 현실감있는 작중 인물로 만들기 위한 소설적 기법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박처사의 신분규명을 통해 박씨부인의 신분 또한 분명해진다. 남주인공 이시백이 지상적 의미의 고귀한 혈통을 소지한데 반해, 박씨부인은 천상적 의미의 고귀한 혈통을 소지한 인물이다. 남녀 주인공의 신분이 천상과 지상이라는 범주로 나누어지고 그밖의 주변인물은 당대사회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국왕, 왕비, 신하 등은 조정의 인물이며, 남편과 시아버지 역시 당대의 권력층에 속한 자들로 박씨부인의 주변인물은 조정을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다.

3-2. 박씨의 초월적 능력

변신을 계기로 가정이 화합하고 박씨를 중심으로 가정내 질서가 재편성되면서 박씨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61] 박씨는 이제까지 가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국가적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된다. 변신 전후를 통틀어 <박씨전>내에서 박씨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에서 박씨가 활약한 것은 가정내의 활약이라기보다 가정 밖에서 이루어진 활약이라고 보는 논의가 있다. 전쟁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이 뛰어난 활약을 하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근대적 여성의식이 형상화된 것이라는 것이다. 병자호란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므로, 사실 한 여성이 가정내에서 활약하여 극복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박씨가 병자호란을 예견하고 참여하고 극복하는 것이 모두 가정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씨가 능력을 발휘하는 장이 이제까지와 같이 피화당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활약을 하는 도중에도 박씨는 여전히 가정내에 머물러 있으며, 가정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거나 가정 밖에서 활동하고자 시도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61) 박효진, 앞의 논문, p.42

또한 박씨가 발휘하는 능력의 본질은 변신 이전과 동일하다. 박씨는 병자호란의 발발을 예견하고, 시백을 통해 임금에게 난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계화를 시켜 호장 용울대와 맞서 싸운다. 여전히 앞일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발휘하고, 시백을 내조하며, 아랫사람인 계화를 수족처럼 능숙하게 부림으로써 고난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변신을 기점으로 박씨가 발휘하는 능력의 영향을 받는 공간의 크기가 변했을 뿐이다. 변신 이전에 박씨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가정내에 적응하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였고, 능력이 미치는 공간 역시 가정 안이었다. 그러나 변신 이후 가정의 안주인이 되어 꼭 필요한 일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자 박씨의 능력은 가정을 벗어나 국내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씨의 능력이 미치는 공간이 확장되었을 뿐이므로, <박씨전>내에서 병자호란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적 활약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박씨는 병자호란을 맞이하여 뛰어난 예지능력을 발휘하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적장과 대결하고 있다.

박씨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여러 가지로 그를 예견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변신 이전부터 이미 박씨는 병자호란을 예견하고 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자신이 거처하는 피화당에 심은 나무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이후 호국의 장수를 죽이고 압도하는 등의 활약을 펼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박씨는 자신을 죽이러 자객 기홍대가 올 것을 예견하였다. 호국은 조선에 쉽게 침입할 수 있도록 조선의 신인인 박씨를 먼저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나 박씨는 호국에서 자객 기홍대가 파견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박씨는 만나보기도 전에 이미 기홍대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종일관 기홍대의 우위에 서 있다. 적에 대해 먼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반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박씨는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잘 활용하여 기홍대가 자고 있는 사이에 기홍대의 비범한 칼과 대결하고 그를 무력하게 한다. 박씨와 기홍대의 대결로 국내에 호국의 침입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호국에게는 조선에 침입할 계기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기홍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자호란은 결국 일어나고 마는데, 박씨는 병자호란의 발발과, 호적의 침입경로를 정확히 예견한다. 조정에 있는 모두가 호적이 설마 침입하겠는가 생각하고 있으며, 혹 침입하더

라도 접근하기 쉬운 북쪽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박씨는 호적이 북도에 있는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백을 통해 그에 대해 대처할 것을 임금에게 촉구하기도 한다.

박씨는 자객을 맞이하기 전이나, 국난이 일어나기 전에 천가를 읽어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모습은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혼여성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양반가문의 남성은 관직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에 한 가문의 가장이 어떤 정치적 신조를 가졌는가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편을 현명하게 내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정치적 흐름을 미리 읽을 수 있어야 했다. 어떤 일이 미리 일어날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이다. 박씨의 뛰어난 선견지명은 줄곧 박씨 개인이 호국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게 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준다.

병자호란이란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많거니와, 가장 눈길을 끄는 소재이다. 병자호란이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끌어들인 것은 분명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크다. 일단 독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독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허구가 혼합되어 허구적 상황은 효과적으로 사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병자호란은 당시 가장 화제가 되고 사람들의 머리에 뚜렷이 각인되었을 사건을 작품안에 사용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박씨는 병자호란에서 도술을 부려 적을 물리친다. 박씨는 천둥번개를 불러오는 등 날씨를 조절하기도 하며 피화당의 나무를 병사로 둔갑시키는 신이한 도술을 발휘하는데, 이는 예사사람이 가진 힘이라고 볼 수 없다. 박씨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숨겨왔던 능력을 병자호란을 맞이하여 최대한 발휘하므로, 박씨는 병자호란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준비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박씨의 뛰어난 능력이 병자호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먼저 <박씨전>에서 병자호란이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히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박씨가 호적이 동으로 침입할 것을 예견함
② 호적의 침입
③ 호적의 장안 탈취
④ 임금의 피란
⑤ 박씨가 일가친척을 피화당에 피란시킴

⑥ 박씨가 피화당에서 용골대를 죽임
⑦ 항복
⑧ 박씨가 피화당에서 용울대를 혼내고 왕비를 구함
⑨ 세자를 볼모로 뺏김
⑩ 박씨가 용울대를 의주로 보내 임경업의 분을 풀게 함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흐름과, 박씨가 활약하는 사건의 흐름은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보인다. 병자호란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서술된 부분은 ②,③,④,⑦,⑨에 해당하며, 박씨의 활약이 서술된 부분은 ①,⑤,⑥,⑧,⑩에 해당한다. 이 두 흐름은 서로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병자호란은 박씨가 예견한 그대로 일어나지만 막을 수는 없다. ②,③,④와 같이 조선에 침입한 호적이 장안을 탈취하고 임금이 피란하는 동안 박씨는 일가친척을 피란시키고, 피화당에서 적장 용골대를 맞이하여 죽인다. 이렇게 박씨가 장안을 탈취한 호적의 장수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⑦에서 임금은 항복하지만 박씨는 임금의 항복을 받아낸 적장 용울대를 간단히 제압한다. 그러나 역시 임금이 항복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박씨는 적장이 볼모로 삼은 세자들과 왕비만은 볼모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이 내용은 ⑨에서 세자들을 볼모로 빼앗긴 역사적 사실과 연결된다. 세자들을 볼모로 빼앗겼지만, 박씨는 용울대를 의주로 보내 임경업의 분을 풀도록 한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의 흐름과 박씨가 활약하는 사건은 서로 교차되고 있지만, 서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만한 영향은 전혀 주고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박씨는 병자호란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큰 업적을 이룬다. 박씨가 활약하는 사건만을 재구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박씨가 호적이 동으로 침입할 것을 예견함
(2) 장안을 탈취한 호장 용골대를 죽임
(3) 임금의 항복을 받아낸 호장 용울대를 혼냄
(4) 왕비를 구함
(5) 박씨가 용울대를 의주로 보내 임경업의 분을 풀게 함

조선을 침입한 호적이 일사천리로 장안을 탈취하고, 남한산성으로 피란한

임금은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항복한다. 심지어 세자들까지 볼모로 빼앗긴다. 이처럼 병자호란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서 조선은 무력하고 치욕스럽기 짝이 없다. <박씨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박씨는 무력하지도 치욕스럽지도 않다. 무력한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로 박씨는 이미 병자호란의 침입경로를 예견하여 호국의 장수보다 우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항복과는 상관없이 호장 용골대를 죽이고 용울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 박씨는 이미 일어난 전란 속에서 조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또한 임금의 항복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조선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박씨가 아니었더라면 조선은 병자호란에서 무력하고 치욕적이기만 했을 것이다.

이처럼 박씨는 병자호란을 일으킨 호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박씨의 국가적인 활약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업적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보상받는다. 적장을 혼낸 것이나 왕비를 모셔가지 못하도록 한 것, 임경업으로 인해 병자호란의 설움을 풀도록 한 것은 박씨만이 이룰 수 있었던 업적이며, 임금은 이런 박씨의 업적을 잘 알고 있었다.

> **그 조셔에 ᄃᆡ강 갈오ᄉᆞᄃᆡ, 짐이 밝지 못하야 충렬의 션견지명과 위국지언을 쓰지 아니ᄒᆞᆫ 탓스로 국ᄀᆡ 망국ᄒᆞ야 이 지경이 되엿스니 정녈에게 조셔ᄒᆞᆷ이 오히려 무류ᄒᆞ도다. 정녈의 덕ᄒᆡᆼ·충효ᄂᆞᆫ 임의 아ᄂᆞᆫ ᄇᆡ라. 규중에 잇셔 나라 위업을 빗ᄂᆡ고 왕비의 위ᄐᆡᄒᆞᆷ을 구ᄒᆞ얏스니 다시 정녈의 충셩을 일커를 ᄇᆡ 업거니와 오직 나라로 더부러 영화고락을 ᄀᆞᆺ치ᄒᆞᆷ을 그윽히 바라노라.**

임금은 일개 아녀자인 박씨에게 스스로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박씨를 충렬부인에 봉하고 일품녹의 만금상을 내려 그 업적에 대해 보상한다. 임금의 이러한 보상은 박씨가 한 일이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 이면에서 활약하는 것은 전면에서 활약하는 것보다 주목받기 힘들며 인정받기란 더더욱 힘들다. 많은 양반가문에서 숱한 여성들이 가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만, 나라에서 인정받는 여성들은 드물었다. 양반가문의 기혼여성들 중에서도 소수만이 자신의 정절이나 지혜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박씨의 업적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은 사회의 이면에서 활약한 박씨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가정내

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국가적 역할이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

병자호란에서 초능력을 발휘하는 박씨를 통해 국난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활약하는 여성의 모습과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3-3. 도술을 통한 사건 전개

도술을 통한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박씨전>의 주인공이 여자라는 측면에 맞추어 갖게 되는 도술 환상 효과는 어떠한지 알게 되며 그 의미까지도 아울러 살펴보겠다.

<박씨전>은 <황부인전>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즉 박씨부인이나 황부인이 모두 박색으로서 허물을 벗고 천하일색이 되었다는 점과, 또한 기이한 재주가 있어서 남편을 도왔다는 점이다.[62] <박씨전>에는 황부인의 이야기를 두 차례나 인용하고 있어 박씨전의 작가가 황부인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박씨전>에서는 황부인의 도술행위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황부인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박씨부인은 남편의 전장에도 참여하는 등 비록 변장을 하지만 바깥 세계에도 진출하고 있다.

박씨는 호국의 침입을 미리 예견하고 방비책을 강구하는 등, 도술과 신력을 가진 인물이며, 미인계로 자기 남편을 죽이려하는 호국공주의 陰計를 밝혀내고, 呼風喚雨하는 도술로써 용골대, 용홀대의 침입을 격퇴시켜 以忠報國하는 여인상이다. 그러나 박씨의 용모를 보면,

> **형용 흉측ᄒᆞ여 보기를 염네론지라. 얼기는 고석갓고 불근 중에, 입과 코와 한데 닷고, 눈은 달팡이 구멍 갓고 치불거지고, 입은 크기가 두 쥬먹을 너허도 오히려 넉넉ᄒᆞ며 이마는 믜독이 이마 갓고, 머리털을 ᄊᆞ르고 심히 부ᄒᆞ니, 그 형용이 ᄎᆞ마 보지 못할네라.**

라고 하여 황부인보다도 더욱 심하게 추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신혼초야를 맞이한 이시백은 신부의 이런 모습을 놀라 즉석에서 뛰쳐나온 후 완고한 父名으로 新行도 시켰으나 한번도 대하는 일 없이 피화정이라는 별당만 후원에 지어주고 냉대하였다. 그러나 <황부인전>과 같이 추악한 용모를 타고 난 것은 전생의 죄 때문이며, 마침내 그 죄를 씻고, 박색으로서의 허물을 벗고 천하의 미녀로 변신되고 있다. 이 또한 정해진 기한의 만료에서 이루어지

62) 양인실, 「한국 고대여성 영웅소설의 연구」, 『논문집』10, 건국대학교, 1980, p.75.

며 박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박씨는 호국의 침입을 예견한 선견지명과 도술을 지닌 여인으로서 남편으로 하여금 국란을 막게 하였으며 또한 용골대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왕을 격려하기 위하여 박씨는 둔갑술을 써서 공중에 나타나 (실체는 보이지 않고 음성만 보인다.) 여장부다운 모습을 보여 준다.

이렇게 하여 박씨전은 <황부인전>보다는 훨씬 도술을 많이 행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남편을 배후로 하기도 하지만 직접 간접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한다. 즉 <박씨전>은 여성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63]

미녀로 변신하기 전까지 박씨부인의 행적은 그의 예시적 신통술의 입증과정으로 세 가지 사건을 전개한다.

첫 번째 사건은 이득춘에게 청을 하여 후원에 피화정을 마련한 일로 別有仙境과 같은 자신의 거처이면서 후일 전란의 위급지경으로 충신, 열사, 왕대비의 피난처가 된다. 피화정을 마련하면서 筆法의 신기함을 자신의 절대적 지지자인 이득춘 앞에서 현시한다. 글자를 한번 뒤적이니 金字로 쓴 현판이 될 정도의 奇才를 보인다. 이 사건을 통해 박씨부인은 英雄大略을 품고 신명한 도법과 재주를 갖춘 인물로 인정받는다.

두 번째 사건은 박씨부인이 노복을 시켜 비루먹은 말을 삼백냥으로 사들이게 한 일이다. 청정미 오홉씩을 먹여 3년을 키운 뒤 명나라 황제의 패문칙사에게 팔천냥을 받고 팔게 한다. 말이 천리준총임을 알고 쓰일 곳 또한 조선에는 합당치 않고 명나라에 필요한 것까지 파악하여 3년 후에 온 명나라 사신에게 파는 신명함을 인다. 볼품없는 말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노복의 불충한 거짓행위를 꾸짖음으로써 이득춘만이 인정했던 신통한 능력이 시하의 노복에게까지 알려지게 된다.

ᄆᆡ아지 ᄉᆞᆷ년을 길은즉 헌 호말마 되엿는지라. 용의 몸의 범에 머리요, 거름은 츄쳔의 구름 갓더라. 박씨 상공게 엿ᄌᆞ오ᄃᆡ, " 모월 모일 되면 즁국의셔 축ᄉᆞ 나올 거시니, 긋ᄯᅥᆨ 이 말을 ᄉᆡ문 밧 영은문에 ᄆᆡ여두면, 측ᄉᆞ 보고 단졍이 ᄉᆞᄌᆞ헐 거시요, 말 승상이 물을 거시니, 호가를 삼만냥이라 ᄒᆞ시옵쇼셔." .....측ᄉᆞ 왈 "말 팔여는야?" ᄒᆞᆫᄃᆡ, 노복 왈 "팔여 ᄒᆞ오나 임ᄌᆞ 업셔 팔지 못ᄒᆞ연ᄂᆞ이다." 측ᄉᆞ 우문 왈, "팔여 ᄒᆞ면 갑슨 얼마나 ᄒᆞᆫ뇨?" 노복 왈, "ᄉᆞᆷ만냥이로쇼이다." 측ᄉᆞ 왈, "말을 본즉 ᄉᆞᆷ만양이 오히려 젹은지라." 장안의 들어와 ᄉᆞᆷ만냥을 쥬니, 승상이 박씨를

63) <황부인전>이 지어진 이후 <박씨전>에 와서야 여성영웅소설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치ᄉᆞᄒᆞ고 심긔ᄒᆞ물 탄복ᄒᆞ더라.

비루먹고 볼품없는 망아지를 삼년동안 길러 준마로 만들어 대명국 칙사에게 삼만냥을 받고 판다. 박씨부인은 준마의 기상을 아는 능력뿐만 아니라, 파는 능력까지 과시한다. 조선에서는 준마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땅이 좁아 준마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준마를 알아보는 능력과 준마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광활한 장소까지 고려하는 대명국의 칙사와는 대조적이다.

준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조선과 준마를 알아보는 대명국의 비교는 박씨부인이 자신의 처지를 말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은 기르는 주인에 따라 준마도 될 수 있고 비루하고 볼품없는 말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씨부인이 지금은 추한 외모를 지니고 있지만 내면적 능력은 보통의 여성으로는 지닐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말과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박씨부인이 비루하고 볼품없는 망아지를 준마로 키워서 파는 행위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사건은 남편인 이시백의 과거응시와 관련하여 장원급제를 위한 장중제구를 마련한 일이다. 박씨부인이 준 과거제구로 과장에 나간 이시백은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고 귀가함으로써 박씨부인의 초인적 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가족의 일원이 된 박씨는 대외적인 안정이 필요했다. 박씨의 변신이 알려지자 일가 친척과 재상가 부인들이 박씨를 초대하니 그 부인들 앞에서 월궁소산의 화렴단, 용궁 소산의 패월단, 술잔을 가로막은 금봉차 등의 신기함을 나타내 보이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런 신긔함은 고금에 업는 일이라 엇지 인간에 나려온 고셕일 진시황 한무제도 엇지 못하던 선인을 우리는 우연이 만낫스니 엇지 즐겁지 아니리요

하며 칭찬하였다. 박씨는 이로써 완전히 대외·대내적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아내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신화적 상상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상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며 환상이란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나 회자되던 설화나 신화 전설에서 범위가 한정되었을 것이다. 박씨가 도술을 써 보여준 하늘나라의 화렴

단, 패월단, 금봉차들은 그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도피하고 꿈꿀 수 있는 도교적인 것에 머문다. 그들이 의심한 것을 박씨는 직접 보여줌으로써 선인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들의 환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혼인한지 3년이 된 때 이르러 부모의 안부를 묻기 위해 금강산으로 근친을 행한다. 오백여리의 험준한 길을 人馬도 없이 수삼일 동안 내왕한다. 오백여리는 먼 길이고 연약한 여자가 단숨에 다녀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초인적 능력을 전수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씨부인은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여 몸을 날리고 구름에 올라 잠시간에 금강산에 도달하는 도술을 부린다. 자신의신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 또한 그의 비범성을 입증하는 단서이다. 근친행후 天數에 매인 추모의 탈을 벗고 미녀로 변신, 요조숙녀로서 이시백 부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우대를 받는다.

이상의 비범성의 현시와 재현사건은 일련의 질서를 갖추고 있다. 즉 피화정을 마련한 것은 장차 있을 외침에 대비한 구국의 일이고 비루먹은 말을 사고 가산의 증식을 꾀한 일과 장원급제를 위한 장증제구 마련은 가문의 번창과 출세를 위한 것이다. 충에 이어 효와 부덕에 관한 행적으로 중심된 사건은 충의 실행으로 요약되나 충의 결과가 효이고 보면 여주인공이 행한 충·효 모두의 행위는 부덕으로 귀결된다. 이는 당대 사회가 윤리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미덕인 부덕이 여성의 행위에 주어지는 최고의 덕목인 탓으로 여겨진다.

국가의 일에서 가정의 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대상의 범주가 축소되면서 자신의 天定의 운수해결로 좁혀져 오는 사건전개의 질서가 드러난다. 가장 후일에 仙人에게 알려지는 과정과 시간을 오히려 지연시킨다. 주위의 인물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부터, 시아버지, 노복, 남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비범함을 인정하는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며 마침내 탈갑의 절차를 통해 가정내 인물 모두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상태에 이른다. 즉 비범성의 발현과정이 국가로부터 자신에게 이름으로써 축소적으로 진행된다면 비범성을 인정하는 대상은 점차 확대되어간다.

후반부의 사건은 병자호란의 패배라는 미메시스 사건과 청나라 군대를 혼내준다는 환타지 사건이 대립하고 있다.[64]

이 사건의 대립은 환타지 인물인 박씨부인을 따르는 무리와 미메시스 인물인 김자점 등을 따르는 무리 사이에서 발생한다. <박씨전>에서는 박씨부인과

64) 장인숙, 「환타지성을 통해 본 <박씨전>의 주제의식」, 위덕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미메시스 인물 사이에서 갈등이 생성되고, 그 사건의 전개와 해결이 환타지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도술 소설로 분류되기도 하는 <홍길동전>의 경우에도 홍길동의 도술적인 행위들이 제시되지만, 이는 희곡에서 말하는 중추적인 행위, 즉 하나의 지향을 향한 행위로 이해 가능하다. 범상치 않은 박씨부인의 능력은 기흥대와 용골대를 도술로써 혼내주는 부분에서 홍길동과 같은 영웅이 갖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박씨부인의 도술은 환경을 환타지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청나라 군사를 혼내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박씨부인은 시공간의 질서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환타지 인물의 능력을 과시한다.

각셜. 잇ᄯᅵ 박씨 피화당의셔 천긔를 보고 승상을 향하여 왈, "북방 호젹이 금방 드러오는가 시부니, 급히 탑젼의 알외여 임경업을 ᄂᆡ직으로 불너, 군ᄉᆞ를 조발ᄒᆞ여 막으소셔."....(중략)..승상이 크게 놀ᄂᆞ 급히 드러가 부인의 말을 낫낫치 알왼ᄃᆡ, 상이 놀ᄂᆞᄉᆞ 만조ᄇᆡᆨ관이 다 경황ᄒᆞ여 임경업을 ᄑᆡ초ᄒᆞ여 의논ᄒᆞ신ᄃᆡ, 좌의정 원두표 쥬왈, "북방 오랑ᄏᆡ 본ᄃᆡ 간계 만ᄉᆞ오니 분명 그러ᄒᆞ올 듯ᄒᆞ오니 박부인의 말ᄉᆞᆷ대로 ᄒᆞ여 보ᄉᆞ이다."ᄒᆞᆫᄃᆡ 김ᄌᆞ졈이 발연변ᄉᆡᆨ하고 쥬왈, "졔신의 말이 그르도소이다. 북젹이 여러번 경업의게 ᄑᆡ한 ᄇᆡ되엿ᄉᆞ오니 긔병할 슈업ᄉᆞ옵고, 셜ᄉᆞ 긔병ᄒᆞ여 오드라 ᄒᆞ여도 북으로 밧게 업ᄉᆞ오니 만일 임경업을 ᄑᆡ초ᄒᆞ엿다가 호젹이 의쥬를 쳐 항셩ᄒᆞ면 그 셰를 당치 못ᄒᆞ며, 국가흥망이 경각의 잇슬지니, 엇지 요마ᄒᆞᆫ 계집의 말을 듯고 북방을 ᄇᆡ옵고 동을 막으리잇가. 이는 나라를 망헐 말이라. 엇지 지혜잇다 ᄒᆞ오릿가" 상이 가라ᄉᆞ되, "박부인은 신인이라 신명지감이 잇셔 여러 번 신긔ᄒᆞ미 잇스니, 그 말ᄃᆡ로 ᄒᆞ고져 ᄒᆞ노라."ᄌᆞ졈이 ᄯᅩ 알외되, "시방 시화셰풍 국ᄐᆡ민안ᄒᆞ오니, 이런 ᄐᆡ평셩ᄃᆡ의 무ᄉᆞ 병난이 잇르릿가, 박씨는 요망헌 계집이어늘, 젼하 엇지 요망헌 말을 침혹ᄒᆞ시며, 국가ᄃᆡᄉᆞ를 아희 희롱갓치 ᄒᆞ시느니잇가." ᄒᆞ니, 만조ᄇᆡᆨ관이 자졈의 말을 그른 줄 알되, 아모말도 못ᄒᆞ드라.

박씨부인은 청나라 군사의 침입을 이시백에게 미리 알려준다. 이시백은 박씨부인의 말을 조정에 전하게 되고, 원두표가 등장한다. 그러나 김자점은 박씨부인이 지닌 초월적 능력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평범한 인물이 갖는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며 만조백관의 여론을 선동하게 된다. 이시백은 김자점의 선동에 휩쓸린 조정의 신료를 바라보며 한숨지으며 평범한 인물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는 단지 박씨부인의 뜻을 전달하기만 하는 처지이다. 그러므로 후반부는 박씨부인과 김자점의 의견대립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후반부의 처음은 미메시스 인물을 대표하는 김자점과 조정 신료들의 승리로 시작되지

만 인식의 한계로 인해 청나라의 침입을 받게 된다.

> 잇씨는 병ᄌᆞ년동 십월이라. 우상이 밋쳐 탑젼의 밋지 못ᄒᆞ여서 동ᄃᆡ문 밧그로셔 방포일셩의 뇌고함셩이 쳔지진동ᄒᆞ며 호병이 동문을 ᄭᅵ치며 장안을 엄술ᄒᆞ니, 장안의 불의비젼을 맛나 모다 분쥬ᄒᆞ는지라. ᄇᆡᆨ셩들이 도젹의 창검의 쥭는 ᄌᆡ 무슈ᄒᆞ여 쥭엄이 ᄐᆡ산 갓더라.

그들과는 다르게 박씨부인은 피화당에서 용골대와 용홀대를 도술로 물리치는 멋진 환타지를 보여준다.

> 골ᄃᆡ ᄃᆡ로ᄒᆞ여 ᄭᅮ지져 왈, 너는 엇더헌 계집이완ᄃᆡ 장부의 마음을 도도는다. ᄂᆡ 아오 물힝ᄒᆞ여 네 손에 쥭엇거니와, 네 나라의 화친언약을 바닷시니, 이졔는 더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이라. ᄌᆞᆫ말 말고 밧비 ᄂᆡ 칼을 바드라... (중략)..용골ᄃᆡ 아모리 분ᄒᆞᆫ들 엇지 ᄒᆞ리요. 마음이 탄복ᄒᆞ고 조션 도원슈 김ᄌᆞ졈을 불너 왈, 황공ᄃᆡ왈, 분부ᄃᆞ로 거힝ᄒᆞ오리다. 용골ᄃᆡ 호령ᄒᆞ여 왈, 네 군ᄉᆞ를 모라 박부인과 계화를 ᄉᆡᆼ금ᄒᆞ여 드리라. ᄒᆞ니, ᄌᆞ졈이 황겁ᄒᆞ여 방포일셩의 군ᄉᆞ를 모라 피화당을 에워ᄭᅮ니 문득 팔문이 변ᄒᆞ여 ᄇᆡᆨ여 길 함졍이 되는 지라. 골ᄃᆡ 그 변을 보고 조련이 파치 못헐 줄 알고 ᄒᆞᆫ 쇠를 ᄉᆡᆼ각ᄒᆞ여 군ᄉᆞ로 ᄒᆞ여곰 피화당 ᄉᆞ방 십니를 깁히 파고 화약 염초를 만이 뭇고, 군사로 하여곰 각각 불을 지르고, 너의 물이 아모리 쳔변만화지술이 잇슨들 엇지ᄒᆞ리요. ᄒᆞ고 군ᄉᆞ를 호령ᄒᆞ여 일시의 불을 노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ᄒᆞᄆᆡ 벽녁 갓튼 소ᄅᆡ ᄂᆞ며 장안 ᄉᆞᆷ십리의 화광이 충천ᄒᆞ여 쥭는 ᄌᆡ 무슈ᄒᆞ드니, 박씨 옥념을 드리오고 옥화션을 쥐여 불을 붓치니, 화광이 호지을 충돌ᄒᆞ니, 호진 장졸이 항오를 일코 다 타 쥭고 발퍼 쥭으며 나문 군ᄉᆡ 술기를 도모ᄒᆞ고 다 도망ᄒᆞ는지라.

용골대는 이미 조선이 화친언약을 맺었고 신하의 나라라고 하며 김자점에게 박씨부인을 잡아들이라고 명명한다.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김자점은 박씨부인을 공격하지만 박씨부인은 도술로 그들 무리를 몰아낸다. 김자점을 비롯한 남성인물 집단은 박씨부인과 대립하며 결국 화를 당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들은 병자호란에서 패배를 하는 반면, 박씨부인은 병자호란의 결과를 도술을 통해 전복하고 있다. 환타지 인물과 미메시스 인물의 대립은 결국 환타지 인물인 박씨부인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용골대가 말하는 조선의 병자호란 패배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건이지만 피화당에서 청군이 패배한 사건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도술로 적을 물리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환타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환타지 인물 박씨부인이 미메시스 인물들과 대립하면서, 사건의 결과를 전복하는 사건은 매우 환타지적이라 할 수 있다.

임경업과 같은 용장의 위력으로도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병자호란의 비참함은 박씨부인이 도중에 벌이는 도술전에 의해 정신적 승리로 회복된다.[65] 박씨부인이 벌이는 군담이 주로 도술전의 양상을 띠는 것은 그가 신화적 영웅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특성과 天上的 存在이기에 가능한 군담 유형이기도 하나, 도술과 같은 비현실적 투쟁 방식만이 실제로 패배한 전쟁에서 문학 작품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군담 유형인 것이다. 즉 작품 내에서 도술은 전개의 가속성과 긴장을 고조시켜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 외에도 전쟁이라는 처참한 현실적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망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본 작품에서 도술행위는 박씨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侍婢인 계화까지도 공공연히 도술을 행사하고 있다. 박씨의 지시로 용골대와 싸울 때 계화의 도술을 보면,

> **"너의 일향 그리ᄒᆞ랴거든 ᄂᆡ 지조를 구경ᄒᆞ라." ᄒᆞ드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 무지ᄀᆡ 이러나며, 모진 비 천지 뒤눕게 오며, 음풍이 이러ᄂᆞ며, 빅셜이 날니며, 어름이 어리여 만군중 말발이 싸의 붓터 촌보를 옴기지 못ᄒᆞ는지라. 그제야 호장들이 황겁ᄒᆞ여 아모리 ᄉᆡᆼ각ᄒᆞ여도 모다 함몰헐지라. 마지 못ᄒᆞ여 호장등이 투구를 벗고 창을 아셔, 피화당 압헤 나아가 ᄭᅮ러 이걸 왈..**

라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계화의 도술을 박씨부인이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호국의 침입을 미리 예견하여 대전과 왕비대전과 세자대전 삼형제에게 아뢰어 공주산성으로 피란하라 하니 조정의 간신인 영의정 김자점과 우의정 백운학이 나서서 태평성세에 패악한 말로 민심을 요동케 한다 하여 오히려 박씨부인을 징계하라고 할 때, 박씨가 계화로 하여금 선녀로 化하게 하여 간신들을 물러나게 해서 상이 피하도록 돕고 있다.

박씨가 이상과 같이 많은 도술을 행사하고 있는데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인하여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들의 지위란 인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국사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현상을 무시하고 박씨부인은 병자호란이라는 일대국란에 참여하여 대공을 세웠으니, 이는 중세기적 봉건제도하에서의 윤리

---

65) 신선희, 「<박씨전>의 작중 인물고」, 『이화어문학회』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87.

관을 탈피한 새로운 타입의 열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필종부라 하여 완전히 인간적인 개성을 죽이고 남성에게 무조건 봉사해야만 되었던 규방여성도 이제는 남성이 하는 일에 그저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규방여성도 남성과 합세하여 이를 타개하여야만 된다는 규방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진출에 박씨부인은 선구자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선구적 활동이 전개되었던 것은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더구나 심리적인 압박까지 감수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기한계에서의 초월, 능력의 발휘, 그리고 남성보다 상위의 위치에 있다는 상황은 그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었던 것이다.[66] 그러므로 박씨의 초월적 힘은 제도의 중압에 눌려 숨도 크게 쉬지 못했던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상상속의 도피처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박씨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고, 비범한 부덕과 婦功과 婦言을 구비하였음은 물론 그 신묘한 도술로써, 적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음에 비하여 박씨의 남편인 이시백은 극히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극도의 남존여비 사상과 대립되는 '상위적 여자 대 하위적 남자'라는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티프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의식이 인간의 잠재의식속에 투영되어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여자가 비천하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열등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바로 여성의 신분적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

66) <박씨젼>『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 문화사, 1980.
(1) 어화 세상 ᄉᆞ름더라 ᄂᆡ의 ᄆᆞᆯᄉᆞᆷ 드러보시오 ᄂᆞᆷ자라도 못할 일을 여ᄌᆞ가 행ᄒᆞ엿스니 엇지 아름답지 안이ᄒᆞ며 엇지 신긔치 안이ᄒᆞ리요
(2) 박씨젼은 조션 고래 유명한 이약이거리 책이온바 두 번 셜명할 것 업거니와
<박씨젼>은 필사 후기에 소재 및 인물의 기이함을 말하고 있으며 (1), 그러한 점 때문에 예로부터 널리 읽혀져왔다고 했다.(2) 한편으로는 (1)을 통해 당대 여성 독자들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었으며, 그로인해 여성 독자들의 애호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Ⅳ. 박씨전의 환상성이 갖고 있는 문학적 의의

환상취약적 경향을 띤 작품은 진리의 전달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전달의 측면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환상취약적 작품은 문학의 교시적 측면보다는 쾌락적 측면을 강조한다. 교시적 기능은 작품의 진리 전달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고, 쾌락의 기능은 정서의 전달체로서 작품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개념이다.[67]

그런데 지금까지 고소설의 주제를 논할 때 주로 교시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그 주제가 도덕적이며 고답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특히 고소설의 주제는 충·효·열·우애 등 관념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교시적 기능 못지 않게 쾌락의 기능이 중요함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쾌락적인 기능이야말로 독자를 작품 속으로 흡인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작품 속에 독자가 몰입해서 작품의 세계를 체험해야만 그 다음에 문학에 녹아든 교시적 요소를 감독할 수 있는 것이니 그야말로 문학의 일차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68]

독자는 딱딱한 교훈을 얻기 위해 소설을 읽은 것이 아니라 작품 속으로 몰입하여 재미를 얻고 현실의 질고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작품을 읽는 것이다. 쓴 약에 설탕을 바르듯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교훈이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흥미적 요소를 가미한다. 이 오래된 이론은 문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문학을 교훈 전달을 위한 부차적인 존재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문학은 결코 교훈전달을 위한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문학 작품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즐거움이며, 문학을 통한 깨달음은 오히려 즐거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이다.

초현실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은 인간 존재의 본래적인 유한성과 불완전성에서 출발된다. 인간은 현실에 살면서도 그 존재의 유한성과 현실의 불만족에서 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고 이를 통해 현실이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인간은 누구나 극한 상황에 접하게 되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실과 대립하는 상상의 세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가상의 만족을 얻게 된다. 야담이나 고소설에 나타나는 선계나 장생불사

---

67)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82, p.23.

68) 변우복, 「고소설의 상상력」, 『한국어문교육』9,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0.

하는 인물의 모습은 인간의 이러한 욕구가 작품을 통해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인간적 요소를 묘사해서 흥미추구의 기교로 흐르는 것은 현실의 그들의 생활-물질적 욕망에서 절대적으로 패배한-에서 도피하여 그 무슨 이상적 사회를 동경하는 심리에서 오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생활의 패배를 공상으로나마 이상적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심리를 그려낸 것이 초인간성이다.

문학이 주는 즐거움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상상에 의한 간접적, 추상적인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상력은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있음직한 본보기를 구성하는 힘으로 상상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허구성이나 환상성은 소설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넓게는 문학, 좁게는 소설은 모두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이야기의 본질이 사실보다는 비현실적 환상성의 추구에 있음을 간파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허구적인 사건이야말로 실제로는 가장 진실한 사건이며, 가장 허구적인 이치야말로 실제로는 가장 진실한 이치인 것이며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만 못하고, 부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 못하다'고까지 하였다.

이 말은 중국 명대의 『西遊記 解題』에서 언급한 것으로 가장 환상적인 사건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사건이며, 환상적인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상을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인간의 천성인 것 같다. 아이들은 실제적인 이야기보다 만화와 같은 추상의 세계에 쉽게 빠져들며, 요새 유행하고 있는 전자오락물도 환상을 주조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품에 드러나는 환상성은 단순한 '황당무계'의 허탕한 이야기가 아닌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인식의 눈임을 확인할 때,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눈높이의 거울' 역할로서 문학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겠다.[69] 뿐만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의 무한지대인 '환상성'은 '현실'이라는 한계적 속성을 초월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열린 공간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된다. 독자의 측면에서 보면 작품을 통해 작가와 교감하는 독자 역시 '환상성' 소재는 일면 '황당무계' 또는 '지나친 허구'라는 반발을 살 수 있지만, 한편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불가시적 '환상성'은 '낯설음' 또는 '주저' '머

69) 김미령, 「한국몽유소설의 문학적 환상기법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뭇거림'의 대상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여기서 구현되는 '환상성'은 비현실을 가장한 작가의 현실 인식태도의 표출 방식이 된다. 즉 현실에서 해결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은 그것을 넘어서 문학적 컨텍스트의 구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여기서 '환상'이 바로 문학의 중재적 기능으로 떠오르고 고전문학이 갖는 환상성 구현의 존재론을 찾을 수 있다.

독자의 측면에서도 환상성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폭제로써 호기심과 흥미적 요소를 부추기는 문학의 '쾌락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작가와 함께 독자 역시 갖고 있던 당대 현실에 대한 욕망과 갈등이 작품을 통해 전면에 들춰지는 쾌감을 만끽하게 된다. 또 당대의 독자로서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삶이 작품을 통해 재현됨을 읽어냄으로써, 독자는 '대리만족'이라는 감정의 정화를 맛보게 되는데, 이러한 정화기능은 독자의 대중성을 이끌어 내는 기본적 인자로 작용하면서, '환상성'의 재현은 문학의 기능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장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환상성으로 구현되는 세계는 인간과 거리를 두고 떨어진 기이하고 신비한 체험의 공간이 아닌 인간 세계와 함께 움직이고 공존하며 나아가 인간 세계의 한 부분으로 통합된 것이 아니고 뒤떨어지는 기법도 아니다. 문학의 본질로서 삶의 결핍을 보충하려는 욕망의 소산이고 따라서 환상성은 그 자체로 주목되어야 할 문학적 가치가 인정된다.

삶에 있어서 환상이란 현실 생활에서의 결핍이나 욕구·욕망을 대리적으로 실현해 주는 기제로 작용한다. <박씨전>에서의 환상은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적 불만들을 허구적 인물인 여성을 통해 해소해 낸 민중의 대리만족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당시 민중의 욕망이라는 것은 병자호란의 치욕적 패배와 그 이후의 모순된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는 임·병란을 겪으면서 기존의 세계관과 그것에서 이탈된 세계관이 서로 교차되고 혼효된 상태를 이루는 시기이다. 이 작품이 주인공 박씨가 여성이면서 영웅이라는 점은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70]

박씨전에서의 뛰어난 여성 대 무력한 남성과의 갈등은 전반부의 가정 내적인 갈등에서 후반부로 가면서 그 갈등의 양상이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71] 전반부 가정 내적인 갈등에서 박씨는 자신의 추한 용모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을 내재적인 탁월한 능력으로 극복한다. 박씨는 하룻밤만에 신술로

70) 여정숙, 앞의 논문, p50.

71) 한국고전소설편찬위원회,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2002, p.217.

조복을 짓고, 선견지명으로 비루먹은 말을 사서 키워 비싸게 팔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자신의 능력을 현시한다. 또한 박씨는 신이한 연적을 남편에게 주어 이시백이 장원급제하게 하는데, 이로 박씨는 가정에서 여성으로서 임무를 완성하게 된다. 여기서 주변 사람들은 박씨의 능력보다 박씨의 추한 모습만으로 박씨의 인간적인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무능을 드러냄과 아울러 그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까지를 겸하고 있다.

후반부에서 박씨는 병조판서가 된 남편 이시백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는데, 여기서 박씨는 무력한 남성들과의 정면 대결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때 박씨의 대결은 위정자들이 알지 못하는 침입을 예견하고, 또한 병자호란의 결과를 예견하면서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피난시켰다가 항복하게 된다. 하나는 대외적인 결과로 박씨는 임경업을 죽이려 온 호국의 공주를 잡아 질책하고, 인조의 항복을 받았던 용골대를 죽이고 용홀대를 잡아 무릎을 꿇리고 항복받는다. 박씨의 이러한 행위는 남성들의 패배를 보상하는 것으로 결국은 무력한 남성 사회에 대한 비판과 여성들의 도전의식으로 볼 수 있다.

<박씨전>의 이러한 양상은 이 작품이 조선 후기 일부 여성사회에서 일기 시작했던 여성들의 남성들에 대한 도전의식과 함께 이민족으로부터의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인 승리의식을 배경으로 했음을 나타내 준다. 당시 사회가 병자호란 후였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는 전란 회복이었을 것이고 작자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것을 엎고자 하는 열망과 나라를 걱정하는 호국의 마음에서 환상을 이용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치유해 보고자 하는 문학적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박씨전>은 비록 부녀자층에서 유행한 소설이었지만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가능하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환상을 이용해 현실을 극복해야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독자와 함께 느끼게 하였다.

환상이 현실의 리얼리티를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출해 왔을 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꿈, 괴물, 이인, 초현실적 영웅으로 표출해 냄으로써 욕망을 표출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한 점에서 정신사적으로도 인간의 마음에 위안과 말하지 못한 것을 배출하는 통로가 돼 준 것이다.

환상은 근대 이후에 많이 연구되어져 오고 활발해졌지만 인류가 문학을 해온 이래 환상은 신화로까지 소급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욕망하는 가치와 염원을 연구하고 반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충분하다.

앞으로 환상의 기법, 진법, 요괴모티프 등 연구해 볼만한 것은 많다. 인간

의 상상력은 무한하고 정석으로 해석될 수 없기에 문학에서 환상영역을 통해 당시대의 의식을 살펴보는 것도 매력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현실에 없는 것, 상상물의 조합이라는 점 등 인간의 본원적인 흥미를 이끌어내고 현대사를 살아가는 인간의 복잡 다단한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도 기여가 될 것이다.

<박씨전>은 이러한 점에서 환상을 통한 흥미성으로 문학을 재미있게 읽혀 대중화에 성공했으며 당시의 여성과 민중들의 원망을 해소함으로써 예나 지금이나 통쾌함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인 것이다.

V. 결 론

본고는 <박씨전>의 환상성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 『한국고전문학전집』15권에 실려 있는 <박씨전>을 대상으로 사건에서 드러나는 환타지성을 고찰해 보았다. <박씨전>에 내재되어 있는 환상의 양상을 사건을 기술하고 공간 및 인물에서 보여지는 환상의 기법을 검토하여 박씨전의 환상성 및, 문학사적 의의로까지 탐색해 보았다.

제 2장에서는 <박씨전>의 환상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서구와 동양문학에서의 '환상'에 대한 정의와 특징 및 성격을 각각 살펴보았다. 서구에서의 환상은 토도로프를 위시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고 동양은 좀 더 늦게 연구되어온 영역이다. 토도로프는 환상(the fantasy)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중인물과 독자의 불안감 혹은 머뭇거림을 꼽고 있다. 이후 랩킨, 캐스린 흄 등이 환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의 논의는 서구문학에 한정된 논의였기 때문에 동양문학의 환상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 동양문학에서의 환상은 도교 및 불교의 종교적 기반하에 기, 이, 괴가 잘 드러난 특징을 보여준다. 박씨전에서도 신선이나 박처사가 거처한 금강산이라는 공간은 도교의 기반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박씨의 외모가 그로테스크한 추녀였다는 것도 기, 이, 괴가 갖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 신묘한 도술을 써서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박씨의 비범성은 환상을 개입하게 하여 독자의 욕망을 해소시켜준다.

3장에서는 <박씨전>에 나타나는 환상성을 고찰했다. <박씨전>의 모티프에서 나타나는 적강모티프와 변신모티프의 결합, 환상공간으로서의 피화당, 인물과 사건의 초월의 성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적강모티프란 천신의 존재가 지상의 세계로 내려와 입사식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박씨전>의 박씨는 추모의 모습으로 태어나 시백과 시댁의 박대를 피하기 위해 피화당을 지어 그 곳에서 조복짓기, 말 이야기, 연적이야기 등의 과제를 훌륭히 수행해내며 시댁의 인정을 받으며 점차 자신의 존재를 확대해간다. 그리고 3년후 박처사의 도움으로 허물을 벗고 미모로의 변신을 한 후 무사히 성년식의 통과의례를 마친다.

조복짓기란 하룻밤만에 시부의 옷을 지어 임금앞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고, 말 이야기는 말을 사들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한편 신통함을 보이며 치산능력을 과시한다. 또한 꿈을 꾸고 연적을 남편 시백에게 전하여 그 연적으로 시백이 과거에 급제하여 남편에게 자

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

<박씨전>에 나타나고 있는 적강모티프는 아버지 박처사의 신분이 천상적 존재라는 설정, 변신 후 박씨가 선보이는 도술 등을 통해 암시된다. 이러한 적강모티프는 변신모티프와 결합하여 박씨의 환상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변신이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완전한 상태를 꿈꾸는데 현실에서의 이와 같은 꿈은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변신에 대한 동경은 여성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꿈의 표출이 바로 박씨의 미모로의 변신인 것이다. 박씨의 추모는 여성들의 열등감을 집약시켜 놓은 것으로 추모에서 미모로의 변신은 극심한 남녀차별과 제도에 얽매인 여성 독자들에게 우위적 위치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무한한 정신적 자유를 부여했으리라 생각된다.

환상공간인 피화당에서 전반부는 박씨가 예언 및 현시를 하고 신묘한 나무를 심는 등의 활약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청나라를 대패하는 등 도술이 나타남으로써 환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피화당은 집·조정·남한산성과 대립을 이루며 환타지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반부에서 추한 얼굴이었던 박씨부인은 박대하는 남편과 주변인들에게서 도피하여 피화당을 꾸민다. 현실의 관점에서 피화당은 도피의 공간이지만, 박씨부인은 가족 구성원에게서 받는 화를 피하고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 이처럼 전반부의 피화당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과 대립된 세계를 표현하는 공간이 되지만 후반부의 피화당은 국란을 대비하고 청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즉 표면적으로는 유교의 가부장권 사회에서 피화당은 규방의 현실공간이면서, 도술공간인 초현실공간이다.

인물과 사건의 초월성은 박씨 및 박처사의 신분 규명을 통해 득죄로 인한 천상적 존재라는 것과 박씨의 초월적 능력을 통해 환상성은 보여지고 있다. 범상치 않은 박씨부인의 능력은 기홍대와 용골대를 도술로써 혼내주는 부분에서 홍길동과 같은 영웅이 갖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박씨부인의 도술은 환경을 환타지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청나라 군사를 혼내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박씨부인은 시공간의 질서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환타지 인물의 능력을 과시한다.

마지막으로 <박씨전>의 환상성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는 환상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질과 당시 사회의 모순과 민중이 갖고 있는 욕망을 통해 고찰했다. 환상이 현실의 리얼리티를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출해 왔을 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꿈, 괴물, 이인, 초현실적 영웅으로 표출

해 냄으로서 욕망을 표출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한 점에서 정신사적으로도 인간의 마음에 위안과 말하지 못한 것들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어 준 것이다.

<박씨전>은 이러한 점에서 환상을 이용해 문학을 재미있게 읽혀 대중화를 성공했으며 당시의 여성과 민중들의 욕망을 짐작하게 하고, 그 흥미성은 예나 지금이나 통쾌함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인 것이다.

參考文獻

1. 資料

『한국고전문학전집1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박씨부인전』, 작가문학편집부, 작가문화, 2003.
『박씨부인전』, 지봉문 주해, 한국문화사, 1999.

2. 單行本

김미란, 『한국소설의 변신논리』, 태학사, 1998.
노대환·신병주,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돌베개, 2005.
사재동, 『한국서사문학의연구』, 중앙문화사, 1995.
사회과학문화연구소, 『조선문학통사 I 』, 이화문화사, 1996.
서강문학여성문학연구회, 『한국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1997.
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한국고전소설편찬위원회편,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2002.
Kathryn Hume,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RosemaryJackson,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4.

3. 論文

강경화, 「고소설의 도술 모티프 연구」, 『건국어문학』15,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강민화,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여성의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강선실, 「<박씨전>의 여성의식과 교육적 측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강유정,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박씨전>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경일남, 「<박씨전>의 불교적 연구」, 『어문연구』14, 어문연구학회, 1985.
고영진,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환상기법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곽기숙,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양상과 의식세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권민숙, 「<박씨전>연구-여성의 대사회참여와 한계성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동기, 「한국고전소설의 신비성 연구」, 『어문연구』17, 어문연구학회, 1988.
김미란, 「고대소설에 나타난 여성변신의 의미」, 건국대학교, 1983.
_____, 「한국 변신설화 연구- 몇 가지 기본사유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8.
_____, 「서화담전 연구」, 『동천학론집』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3.
김미령, 「한국몽유소설의 문학적 환상기법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김민영, 「고소설에 수용된 변신화소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성미, 「전우치전의 변신모티프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영수, 「한국 서사문학의 변신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은옥, 「<박씨전>과 <임경업전>의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종만, 「<박씨전> 연구」,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김현주, 「<박씨전>연구-근대지향적 의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효식, 「<숙향전>의 환상성과 그 의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박무한, 「<박씨전>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박상재, 「한국창작동화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박성미, 「여장군 소설 주인공의 변신 연구-서사적 기법과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신호, 「불교 변신설화의 연구」, 『전통문화연구』4,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6.
박효진, 「<박씨전>의 주제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배원용, 「변신설화의 변신양상」, 『서경대학교 논문집』11, 서경대학교, 1983.
변우복, 「고소설의 상상력-<전우치전>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9, 한국교원

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0.
서보경, 「병자호란을 바탕으로 한 여성소설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신선희, 「<박씨전>의 작중인물고」, 『이화어문학회』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87.
심민호, 「<박씨전>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의의」, 『우리말 글』30, 우리말글학회, 2004.
안순희, 「조선후기 영웅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박씨전>, <옥주호연>, <홍계월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양인실, 「한국 고대여성 영웅소설의 연구-이조여성 사회활동면을 중심으로」, 『논문집』10, 건국대학교, 1980.
윤경수, 「고소설과 국조신화의 변신 모티프 연구」, 『비교문화연구』9, 익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8.
윤분희, 「<박씨전>의 여성영웅성 연구」, 『한국민족문화』18, 익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2.
여정숙, 「<박씨전>에 나타난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성과 그 의미」, 성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경우, 「설화적 측면에서 본 <박씨전>」, 『논문집』13, 서원대학교, 1984.
임경림, 「<박씨전> 연구-<임경업전>과의 비교중심으로 」, 『목원어문학』3,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2.
임영옥, 「변신모티프의 현대적 의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임혜진, 「<박씨전>의 교육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장인숙, 「환타지성을 통해 본 <박씨전>의 주제의식」,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장준기, 「조선후기 전쟁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정미영, 「<박씨전> 연구-성 정체성 모색을 위한 교육 방법론」,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인모, 「여인발복설화의 소설화 양상 고찰」, 『김구논집』3, 동국전문대학, 1996.
정혜영,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추명진, 「<박씨전>의 문학교육적 의의와 지도방안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경희, 「<박씨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최규수, 「적강모티프 유배가사 작품에 나타난 표현방식의 특성과 시적효과」, 『이화어문논집』1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4.
최현애, 「여성영웅소설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교육적 가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명환, 「한국현대소설의 환상성」, 『국제학술대회』,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2.
홍영희, 「<박씨전>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황국명,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환상기법의 연구」, 『인문사회과학논총』6,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9.